

성도의 빛 **4** 198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4월호 별책 부록 : 성도의 빛 어린이란

성도의 빛

1988년 4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앤사인, 뉴 이라 및 프랜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칭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턴.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 제264권, 제24권, 제4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88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804KO

PRINTED IN KOREA 4/88

© 1988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ublished monthly by the Corpor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531-2947.

POSTMASTER: Send form 3579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 “승천”, 해리 앤더슨 그림. 금월호
대관장단 메시지 참조

목차

2	대관장단 메시지 :	말일성도와 비기독교 종교,
	나의 구세주께서	알 러니어 브리취
	살아 계심을 압니다	33 축복사의 축복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41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워 떨며”
7	거의 모든 것을 잃어 버린 사람	로이든 지 데릭 장로
	에일린 나이트	

청소년란

9	자선 봉사	
	델마 윌리엄스	36 나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캐드린 루백
10	속죄의 치유 능력에 대한 회상	
	에드윈 더블류 엘더스	38 약속 디버어 해리스 장로
13	귀중한 동반자 : 물문경	44 물통 수 트레이퍼
	교오꼬 가리따	
		46 신앙의 공화국 리자 에이 존슨

15	방문 교육 메시지 :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	----------------------------------

성도의 빛 어린이란

16	결혼 생활에서 영을 구함	2 내 동생 한스 엔 에스 부쉬맨 테렌스 디 올슨
		4 여러분은 영원해요 진 맥물린
20	1019호에서의 기도	5 림하이 백성들의 탈출
	존 비 피시	
23	비상한 시험을 지닌 사람	6 제닛 이반스 맥케이 수잔 애링톤 매드슨 리차드 카원
	신시아 엠 가드너	8 색칠하는 페이지

25	라일락 꽃나무
	게리 윌튼

27	고통스런 성장
----	---------

29	질의 응답 :
	화석과 지구의 역사, 모리스 에스 피터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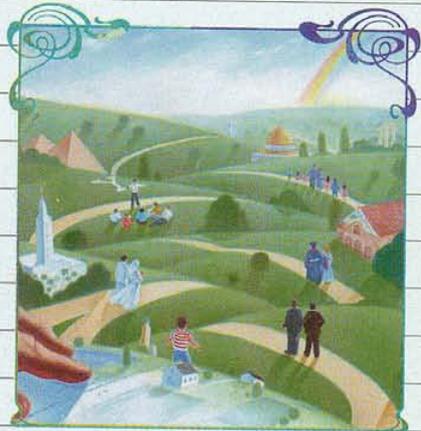
교회 및 지역 소식

毛ル毛之経

経



堀内愛子



나의
구세주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아 이다호 프랭클린 마을에도 봄은 돌아왔습니다. 언제라도 반겨 주는 듯하는 로빈새의 지저귀음을 들을 수 있고, 처음으로 꽃망울을 터뜨리는 수선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밤새 칙칙한 겨울의 누런 풀잎이 연초록 색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어, 쟁기로 밭을 갈고 씨가 뿌려지면, 새로운 생명의 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부산스런 움직임과는 거리가 먼 곳인 산기슭 가에 마을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어느 봄날 크지 않은 새로운 무덤이 파여지고 조그만 관이 모태가 된 땅에 놓여졌습니다. 눈에 돋보이는 비석에 세 줄의 글이 씌어졌습니다.

마이클 폴 섬웨이

출생 : 1965년 10월 24일

사망 : 1966년 3월 14일

섬웨이 가족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들은 이곳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사는 나의 이웃들입니다. 마크와 윌마 섬웨이 그리고 자녀들은 항상 다정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합니다. 그들은 이웃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줍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마이클이 태어난 10월 24일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형제와 자매들은 기쁨에 넘쳐, 어머니는 겸손하게 이 어여쁜 새 사람이 지상에서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행복한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삼 월에 운명의 밤이 닥쳐 어린 마이클이 하늘의 집으로 불려가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마크와 윌마는 귀한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으나,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와 자매, 아들이나 딸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려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대의 읊이 물었던 그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기 14 : 14)하는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아도 여전히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인의 비틀거리는 발걸음과 함께 옵니다. 죽음의 부름은 인생의 여정의 중반기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오며, 어린 아이의 웃음 소리를 끊어 놓기도 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또는 영생을 알게 될 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우리 존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수면 그리고 망각
우리와 함께 뜨는
인생의 별인 영혼은
어디엔가 젖다가 먼곳에서 오는 것
완전한 망각도 아니며
완전한 벌거숭이도 아닌 채로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다.¹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가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는 땅은 형체가 없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중을 나는 새를 만드시고, 물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위의 짐승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참조)

그런 다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으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땅은 시험받는 곳, 우리가 필요한 경험을 얻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웃고, 울고, 일하고, 놀며,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단 한분 나사렛 예수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죽은 채 지내게 됩니다. 외양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뉘인 그의 탄생은 많은 예언자들의 영감받은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생명과 빛과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를 경배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그를 반대했습니다. 그는 비유를 사용하시고 모범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성역 기간

중에 소경이 보았으며, 병어리가 말을 하고, 절름발이가 걸었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오셨지만 적대자나 반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마침내는 재판이라는 모욕적인 처사까지 따랐습니다.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 외침이 밤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후 갈보리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롱과 모욕받고, 멸시당했으며,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찌어다”(마가복음 15:32)라는 외침 속에서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마태복음 27:42);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누가복음 23:39)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육신은 사랑하는 친구들과 친지들이 돌로 만든 무덤에 누였습니다.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주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누가는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1, 5~6)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하는 욥의 질문이 바로 그때 대답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경전은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순교의 죽음을 맞게 되었던 스테반은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사도행전 7:56)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간증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바울의 감동적인 간증으로 영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 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린도전서 15:3~8)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를 알아 듣고 눈을 들어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니, 보라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

“우리가 모두 차례대로 나아가 친히 목격하고 나서 한소리로 높이 부르짖어 이르기를

“호산나로다!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리로다 하며 예수의 발밑에 엎드려 예수를 경배하였느니라.”(니파이삼서 11:7~11, 14, 16~17)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한 아들을 소개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육신과 지체와 감정이 없으신—인간의 철학의 소산인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는 귀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입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동정심과 사랑을 느끼는 마음도 갖고 계십니다. 그는 실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보이며 그는 우리와 같이 보입니다. 이분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독생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입니다.

월마와 마크 섬웨이 두 분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분께,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요 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욥기 1:21)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죽음의 사슬이 끊어졌으니,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은 죽음으로 나뉘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함께 모여 영생의 축복을 나누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 속으로 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온 마음과 내 영혼의 열성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특별한 증인으로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의 아들이시요, 아버지의 육으로 난 독생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내 구주 살아계시다!” 이 찬송가의 말씀이 주는 기쁨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

1 “송가—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영생을 깨닫는 노래”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개념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1. 죽음은 우리가 영생에 관하여 배울 때 가장 잘 이해가 됩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세상을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토론시 유의 사항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가?
2. 우리가 이 달에 경축하는 부활절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활절을 경축하는 합당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토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가.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에 관한 경전 기록을 읽는다.
- 나.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찾아 본다.
- 다. 특별한 가정의 밤 모임과 간증 모임을 갖는다.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나는 가족도, 직장도, 집도
없는 이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꼈다.

에일린 나이튼

나는 간호원으로 일하고 있던 솔트레이크 병원에서 말이 없는 중년 남자인 프랭크를 만났다. 그는 왼쪽 다리에 혈액 순환 불량으로 검사를 받으러 왔다. 여러 날 동안 검사를 받고 나자, 혈액 순환이 더 나빠졌다. 의사들은 프랭크의 다리를 무릎 아래까지 잘라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수술이 집행되었다.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나는 내가 일하는 시간 동안 프랭크를 보러 온 방문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전화 연락이나 편지를 받은 일도 없었다.

너무나도 외롭게 보이는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에서, 나는 그의 병원 기록을 살펴 보았다. 그의 병원 기록에는 집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는 집도 없이 전국을 떠돌아 다니는 방랑자였던 것이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는 텍사스에 있는 여동생이 기록되어 있었다.

다른 간호원들보다 내가 프랭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나는 그를 보러 갔다.

그는 평상시와 같이, 머리에 빗질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좀더 편안한 자세를 찾아 보려고 애쓰면서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제가 도와 드릴까요?” 하고 내가 물었다.

“그럼, 저 베개를 내 다리 밑 여기에 피어 주시오.” 하고 그가 그의 넓적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무래도 편안한 자세를 찾을 수 없군요.

그렇게 아픈 것인가요? 아직 진정제 주사를 놓을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하고 내가 말했다. “아직 다른 주사를 놓을 시간이 안 되었는데요. 자, 제가 물 한잔 따라 드리겠어요.” 물 주전자를 들어, 나는 그의 잔에 따라 주었다. “이 도시 출신이세요?” 하고 내가 물었다.

“아닙니다. 나는 지난 번에 네바다에서 일거리를 끝내고 직장을 구하러 솔트레이크시티로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몬타나로 가는 중이었어

요.” “아, 그곳에 가족이 있나요?”

“아닙니다. 나는 가족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방안을 맴도는 것 같았다. “나는 가족을 잃었어요.”

그는 잠시 멈췄던 다리의 고통이 다시 계속되자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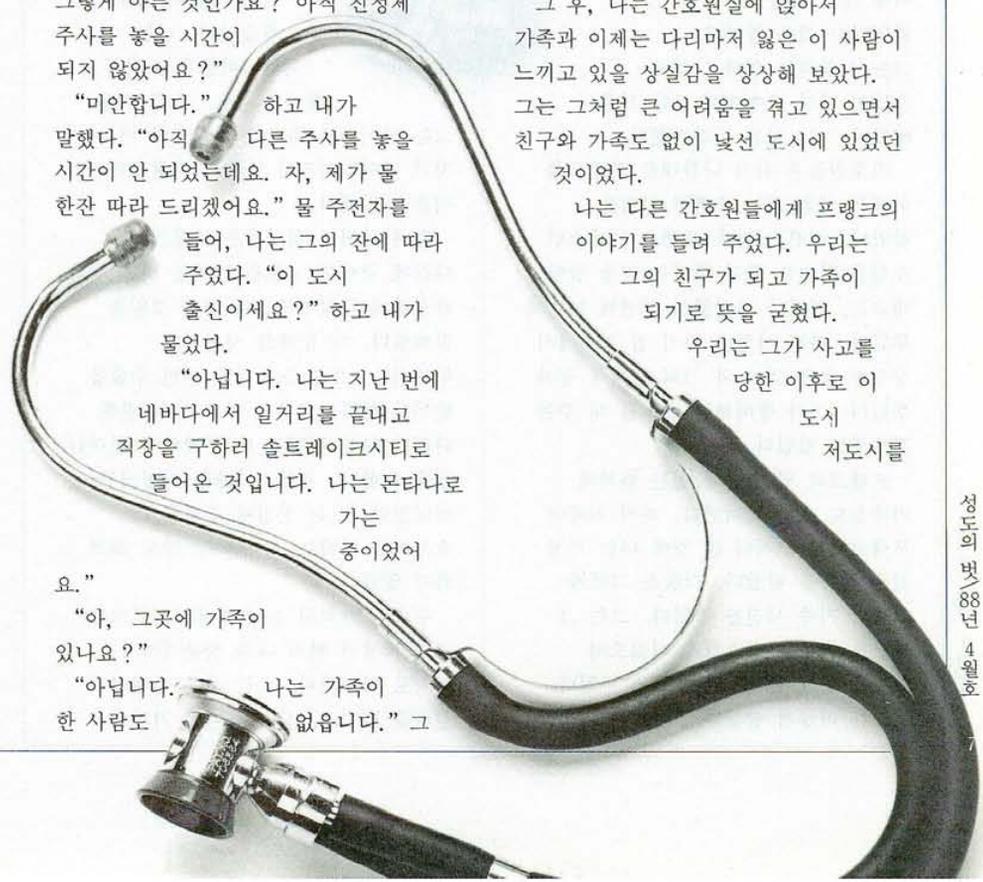
나는 그에게서 고통이 지나간 것처럼 여겨질 때까지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어깨 위에 내 손을 올려 놓았다.

“자동차 사고로” 하고 그가 설명했다. “내 아내와 다섯 명의 자식들을 잃었어요.”

그 후, 나는 간호원실에 앉아서 가족과 이제는 다리마저 잃은 이 사람이 느끼고 있을 상실감을 상상해 보았다. 그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친구와 가족도 없이 낯선 도시에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다른 간호원들에게 프랭크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우리는 그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기로 뜻을 굳혔다.

우리는 그가 사고를 당한 이후로 이 도시 저도시를



간호원들은 나름대로 프랭크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했다. 입을 거리를 빠짐없이 챙겨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집 정원에서 꺾어 온 싱싱한 꽃을 그의 침대에 꽂아 두는 사람도 있었다.



다니며, 자신이 잃은 모든 것을 대처할 만한 어떤 것을 찾아 보려 애를 썼으나,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다시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간호원들은 각기 나름대로 프랭크를 위해서 일을 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았다. 어떤 사람은 프랭크가 웨스턴 소설을 읽기를 즐겨 한다는 것을 알아 내고는, 언제나 빠짐없이 한권씩 마련해 두었다. 다른 사람은 자기 집 정원에서 싱싱한 꽃을 꺾어 와 그의 침대에 꽂아 주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 주는 간호원도 있었다.

프랭크의 옆 병상에 있는 환자의 가족들도 또한 참여했다. 파커 가족이 프랭크에게 가져다 준 것에 나는 가장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그에게 그들의 가족 사진을 주었다. 그는 그 사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그것을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두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가족이

없으므로, 파커씨 가족은 내가 그들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들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이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마치 자기 아이들이거나 하듯이 자랑스레 이름을 말했다.

얼마 안되어 의사들은 프랭크가 다리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치유 과정에서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임을 밝혀냈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프랭크는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왼쪽 다리를 무릎 위까지 더 절단해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프랭크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는 진정제 주사를 더 요구하는 외에는, 누구와도 말도 하려 하지 않았다.

수술이 계획된 전날 밤에, 프랭크는 그의 방에서 빠져 나와 창문가까지 억지로 다가갔다. 그는 창문 아래의 걸쇠를 벗기고, 삼층 높이인 거기서

뛰어내려 모든 것을 끝마치고자 했다. 더 이상 고통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절망도 마음의 아픔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외로움도 없으리라. 그러나 그는 창문을 열 수가 없었다. 절망과 고통 속에 마루 바닥에 엎어진 프랭크는 그곳에 누워 울부짖었다.

수술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그의 다리의 남은 부분이 정상적으로 치유되었으며, 고통도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프랭크가 마침내 호전되는 것을 보고 모두 안도의 숨을 내 쉬었다.

파커 가족은 선교사들을 소개해 주었으며, 프랭크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훌륭한 가족은 프랭크가 퇴원한 후에 그들의 집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그는 다리가 다 낫자마자, 침례를 받았다. 그는 이제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다시 시작해 보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프랭크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다섯 명의 자녀들에게 인봉될 수 있는

자선 봉사

델마 윌리엄스

나의 남편은 줄지에 뇌일혈로
쓰러져, 나는 하루 이십
사 시간 그를 돌보아야 했다.

날을 고대하고 있다.

나는 그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나는 프랭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다가 그에게 물문경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실상, 나는 직장에 있는 설함에 물문경을 한권 사 두었으나 그 책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에, 나는 프랭크에게 설함에 들어 있었던 그 책에 대하여 간신히 말했다. 프랭크는 내 이야기에 재미있어 하면서도 내게 손짓을 하며 다시는 그러한 속삭임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나도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

에일린 나이트은 파밍튼(유타) 제12와드의 초동협회 서기이다.



때 때로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 사랑스런 자매들만이 자선 봉사를 베풀고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을 위해 봉사해 준 사람들은 바로 우리 와드의 대제사들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줄지에 좌반신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두 달 반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으나, 나는 하루 이십 사 시간 남편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수십 킬로 미터나 떨어진 곳에 사는 가까운 친척들은 친절한 격려의 말로 전화도 해 주고 편지도 해주었으나, 이곳까지 와서 남편을 돌보는 나를 도와 주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한지 하루만에 우리 가정 복음 교사인, 클리프 바튼 형제가 집에 들려 우리 와드의 대제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려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매주 몇 시간씩 집에서 떠나 있는 것이 나나 남편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될 것이라는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애정을 가지고 돌보아 주는 대제사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씩 남편과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잡지 기사도 읽어 주고 이야기와 유머를 들려 주며 곁에 있어 주는 것으로 영적이며 지적인 깨달음과 즐거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전에는 그다지 잘 알지 못하던 사람도

우리에게 귀중한 봉사를 해 줌으로 인해 이제는 다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달 첫 월요일에는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립니다. 바튼 형제가 방문 계획을 짜기 위해 한 달 간의 나의 일정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훌륭하고, 꼼꼼하고 다정한 분들입니다. 그들의 즐거운 방문은 길고 추운 겨울도 짧게 해 주고, 음울한 날을 환하게 그리고 햇빛이 비치는 날은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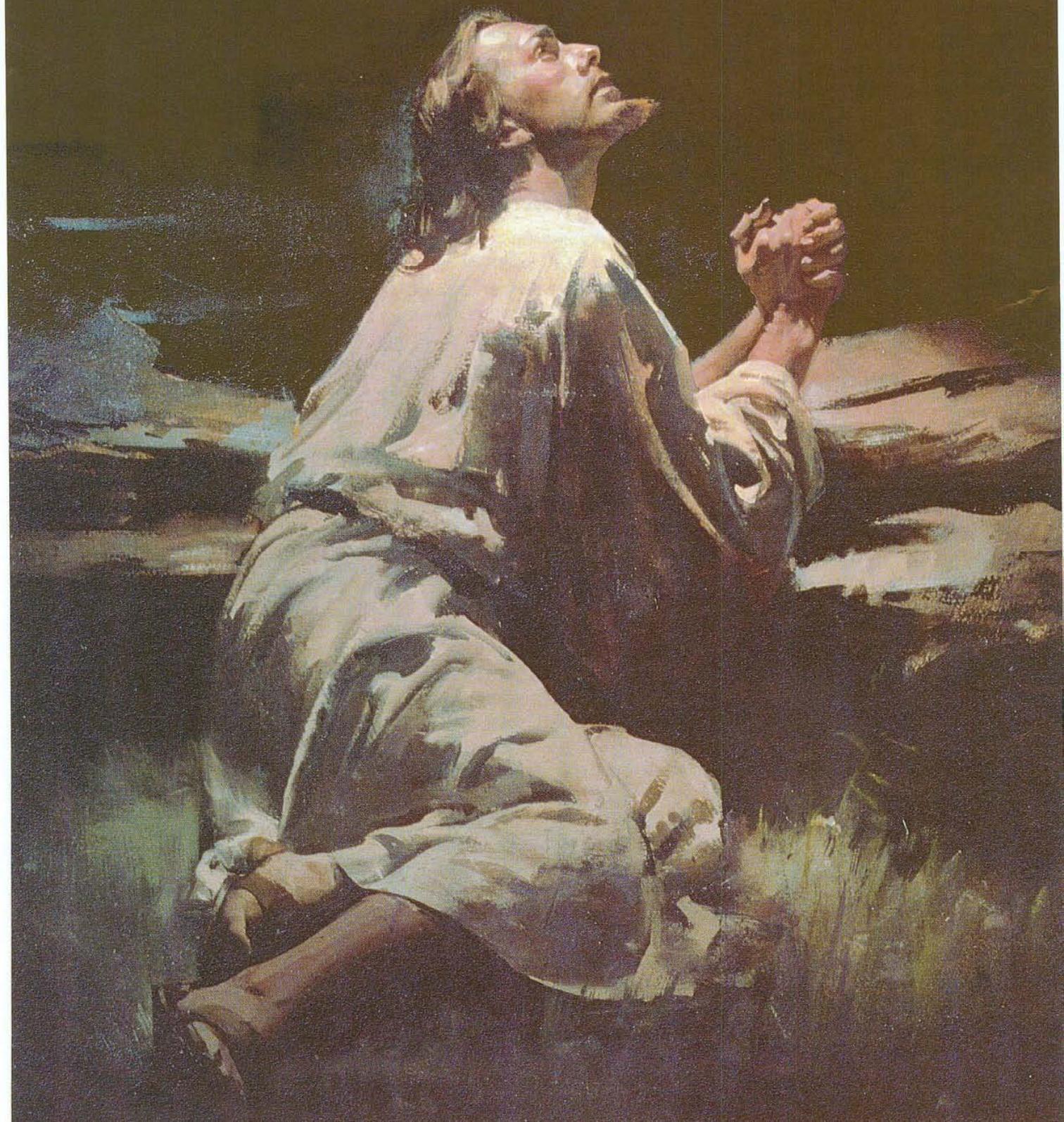
밝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와드에서는 형제님들이 봉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데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델마 윌리엄스 자매는 프로보 유타 오크 힐스 스테이크의 오크 힐스 제4와드의 상호부조회 음악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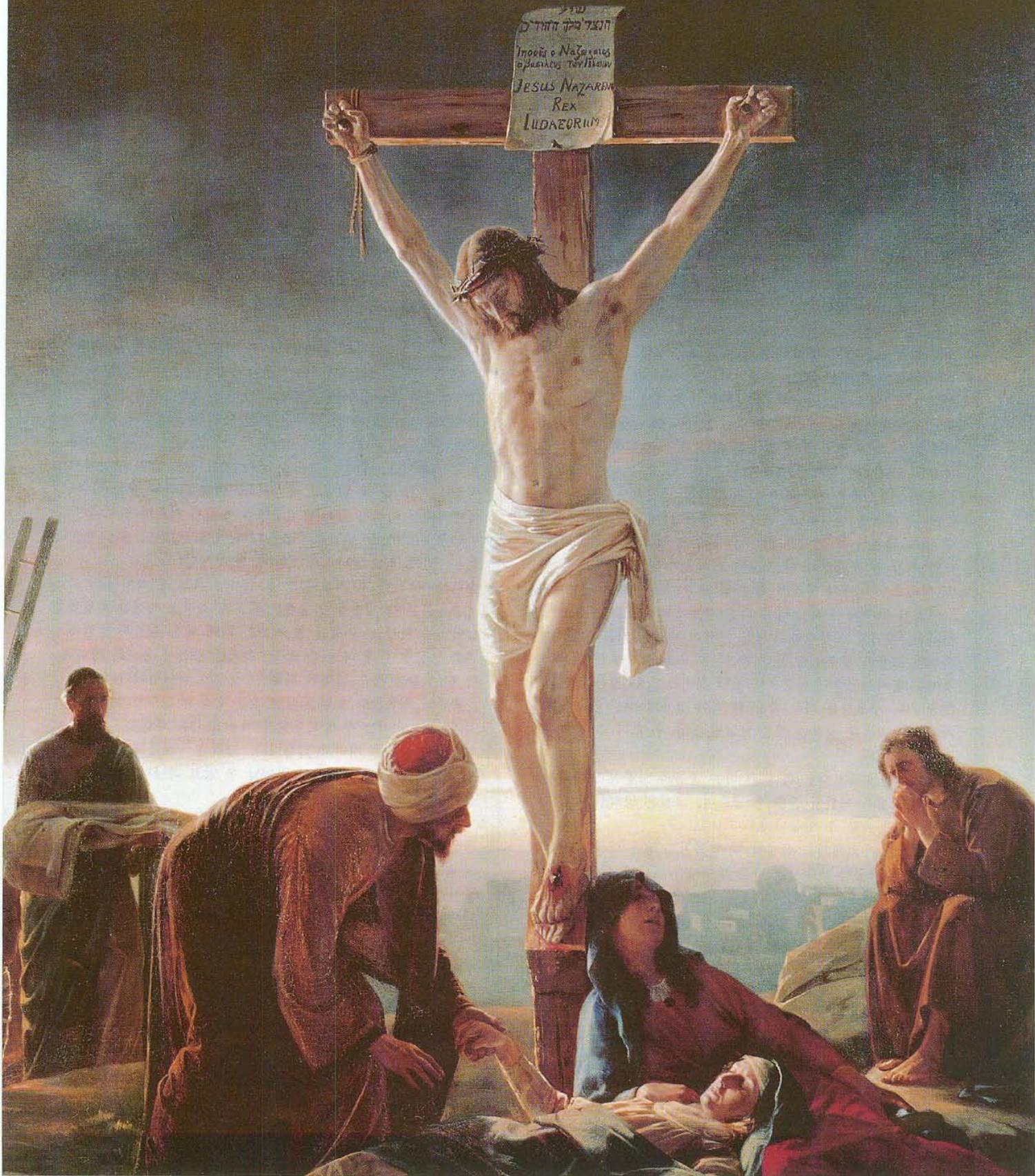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가 겟세마네와 십자가
상에서 극심한 신체적, 영적 고통을 당하심을
목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없애 주실 수
있듯이, 그의 아들의 고통과 고난도 덜어 주실 수

속



죄

있으셨습니다. 사실상 그는 구세주에게서 쓴 잔을 지나가게 하실 권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의 아들에게 모든 희생 중에서도 가장 큰 희생을 감당해 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속죄의 치유 능력에

대한 회상

에드윈 더블류 앨더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그 고통과 덜어줄 아무런 힘이 없어 바라다 보고만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의사인 나는 이러한 경우에 처한 부모들이 도움을 줄 힘이 전혀 없으면서, 그들의 자녀의 고통과 고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하기를 원하는 것을 종종 보아 왔습니다.

세 살난 모니크는 어느 날 아침 세 시에 혈관에 항생제 주사를 맞을 필요가 있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입원 수술을 받고, 수술까지도 받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혈관이 작고 약해서 혈액에 항생제를 주입하기 위해서 한 시간 이상 걸렸으며, 간호원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크고 강한 혈관을 찾아 내기 위하여 몇 번씩이나 바늘을 그녀에게 꽂아야 했습니다.

여덟 살 난 톰은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광대뼈가 부러지고 눈에 큰 부상을 당하여 두 번씩이나 수술을 받고 정상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 두 번이나 더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열 세살 된 프랭크는 다른 소년과 싸움이 붙었는데, 불행히도 그 싸움으로 턱뼈가 부러져 육 주일 동안 고정시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수없이 많은 다른 경우에서 부모는 가능하기만 하다면, 자녀의 신체적인 고통을 기꺼이 대신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고통이 부주의로 인한 것이든지 혹은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든 불가항력적인 환경으로 인한 것이든 그런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아무 것도 할 힘이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 방에서 나오고 맙니다.

신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나쁜 다른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은 영원히 남을 수 있으며, 그것은 영적인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 신체적 및 영적인 고통을 덜어 주실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주시는 다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는 신체적 사망으로부터 부활될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역시 영적인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구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가 겻세마네와 십자가 상에서 극심한 신체적, 영적 고통을 당하심을 목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없애 주실 수 있듯이, 그의 아들의 고통과 고난도 덜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실상, 그는



구세주에게서 쓴 잔을 지나가게 하실 권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의 아들에게 모든 회생 중에서도 가장 큰 회생을 감당해 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구하실 수도 있었던 순간에,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 속에 그의 아들에 대한 사랑만을 품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사랑도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셨음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의 고통당함을 참고 바라보실 수 있었으며, 결국은 그를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주로 내어 주셨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가 없이는, 그리고 그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그대로 남아 있어 결코 그의 면전에서 영화를 받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은사를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부나마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였던 것입니다.”(브라이언트 에스 킵클리 인용, 멜빈 조셉 벨라드의 설교와 선교 사업,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49년, 154~155페이지)

감독인 나는 범법을 인식하고 회개의 과정을 시작한 회원들을 상담하는 데서 큰 기쁨을 찾습니다. 죄에 대한 슬픔과 범법에 대한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속죄를 통해서 용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감독의 가장 큰 경험의 하나입니다.

속죄의 치유함의 효험을 보는 것은 복음의 진수를 보는 것입니다. 속죄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회개의 필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 죄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속죄는 우리에게 참으로 훌륭한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의 짐을 스스로 짊어 지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신 구세주께서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

에드윈 더블류 앨더스, 의사, 솔트레이크 와사치(유타) 스테이크, 버틀러 제16와드 감독

七ル毛ノ經

귀중한 동반자: 몰몬경

나는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닐 때부터, 여러 종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교회 모임에도 참석해 보고 설교도 많이 들어 보았습니다. 나는 중학교 때 요셉 스미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참된 교회를 찾기 시작했으며 그 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한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가 우리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처음으로 본 몰몬경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나팔을 불고 있는 걸장의 디자인에 흥미를 느껴, "그게 무어니?"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교회에 관하여 배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오코 가리따는 현재 도모교 목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본 기사의 내용은 먼저 일본어 판의 지역 소식란에 실렸던 것이다.

堀内秀子



온 세상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겠지만, 물몬경은 나에게 귀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통 책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읽고 싶을 때면 읽을 수 있도록 그 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얼마 후에 나는 단지 읽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바로 나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영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말하도록 내게 일러 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 납니다.

나는 내 물몬경에 나름대로의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싶지가 않아서 여분으로 한 권씩 더 가지고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두 권씩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손에 작은 지갑이나 들고 다니는 예쁘고 어린 처녀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무거운 솔더백에 물몬경을 넣어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의 무게로 인해 나는 나누어 주어야 할 무언가 중요한 것을 지니고 있는 말일성도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피곤해지면, 선교 사업을 좀더 빨리 하여 나의 짐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물몬경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말할 때마다, 그들은 대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로 읽지 않을지도 모르나, 언제 그 사람이 자신은 누구이며, 이 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는 때가 있을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간증한 것을 기억하고 책을 펴 볼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물몬경을 누군가에게 한 권씩 줄 때마다, 나는 항상 그들이 그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이의 증인이며, 구원의 계획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들어 있음을 발견할 때, 그들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한 발견은 그들의 남은 생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나는 물몬경 열 권을 사기 위해 교회 배부 센터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집에 올 때는 차 안에서 “짐이 무거워 보이는군요, 내 무릎 위에 올려 놓으세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감사의 표시로 그 사람에게 물몬경을 한권 선사합니다. 동시에 나는 그 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간증을 하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 줍니다. 한번은 내 짐을 받아준 사람 옆에 앉았던 승객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도 역시 나를 도와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로서는 물몬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옵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 때에도 물몬경을 들고 있기를 좋아하며, 내가 불안을 느낄 때라도 평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느끼는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자만심으로 내심 고통을 받을 때, 베냐민 왕(모사이아서 2:20~22, 24~26)은 내게 말해 줍니다. 내가 나의 약점으로 고통받을 때, 나는 모로나이와 니파이에게서 가르침을 받습니다.(이더서 12:27, 니파이어서 4:17~35) 내가 주저하게 될 때는 니파이에 대한 것을 읽습니다.(니파이일서 3:7) 간증을 하기가 두려울 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간증을 한 아비아다이가 내게 말해 줍니다.

한 때는 친구였던 사람들에 의하여 배척당한 앰올레크(엘마서 15:16): 이 천 명의 용감한 용사들(엘마서 57:19~21)이 보여준 용기라든가: 깊은 회개하는 마음과 이웃에 대한 강한 사랑을 보여준 반 니파이-리하이인(엘마서 24장): 엘마, 암몬, 아론 및 몰레카이인과 같은 놀라운 선교사들: 야렛 형제들이 보여준 겸손과 강한 신앙: 어린 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을 지닌 라모나이왕: 그들의 신앙과 용기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갖고 있던 모로나이와 레이맨인 예언자인 사무엘 등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구모라 언덕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모로나이가 혼자 남아서, 금판을 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필사적으로 그 거룩한 판을 보호한 것과 그것을 번역하기에 합당하여 우리 시대에 물몬경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물몬경을 나의 동반자로 갖게 된 것을 큰 기쁨과 특권으로 생각하며, 내가 합당하여 언젠가는 그 저자들을 만나 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목적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긍정적인 모범을 보임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그를 따랐다. (마태복음 4 : 18~20) 예수의 제자가 된 이들 겸손한 어부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는 기적을 행하셨으며,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고, 속죄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가능하게 해주셨다.

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 : 15)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한복음 13 : 35)고 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를 원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일 수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복음을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된다. 어떤 청년은 축복사의 축복에서,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모범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리라는 말을 들었다. 그 후로 그녀는 참으로 많은 곳을 여행했다. 대학에서는 연주 그룹으로,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축복사의 축복문을 기억했으며, 비회원들과 교회에 대하여 토론할 많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최근에 개종한 어느 자매는 한 일요일에 어떤 자매가 언젠가는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하여 성전에 갈 의도로 옷을 입을 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저자기 놀랐다. “그 자매님의 말씀에서 나는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녀는 말한다. “그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서, 내가 성전에 있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녀는 후에 단정치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옷차림은 피했으며, 옷을 구입할 때도 교회 표준을 마음속에 두고 했다. 이년 뒤 그녀가 엔다우먼트를 받았을 때, 그녀는 복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단정하기도 했거니와 아름답기도 했다.

긍정적인 모범을 보인다는 것에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심을 보내고 그들의 신념에 대하여 관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쓰이는 지침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예절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견과 재물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경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 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77~78 페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곧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반영한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보다는 친구들이나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존경심과 관용을 보여 주기가 더 쉬운 때가 많이 있다. 우리가 피곤하고 병들고, 스트레스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반항적으로 대어 드는 자녀에게나, 생각이 모자라는 배우자에게, 또는 화가 나 있는 같은 방 친구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권고를 해주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베드로전서 3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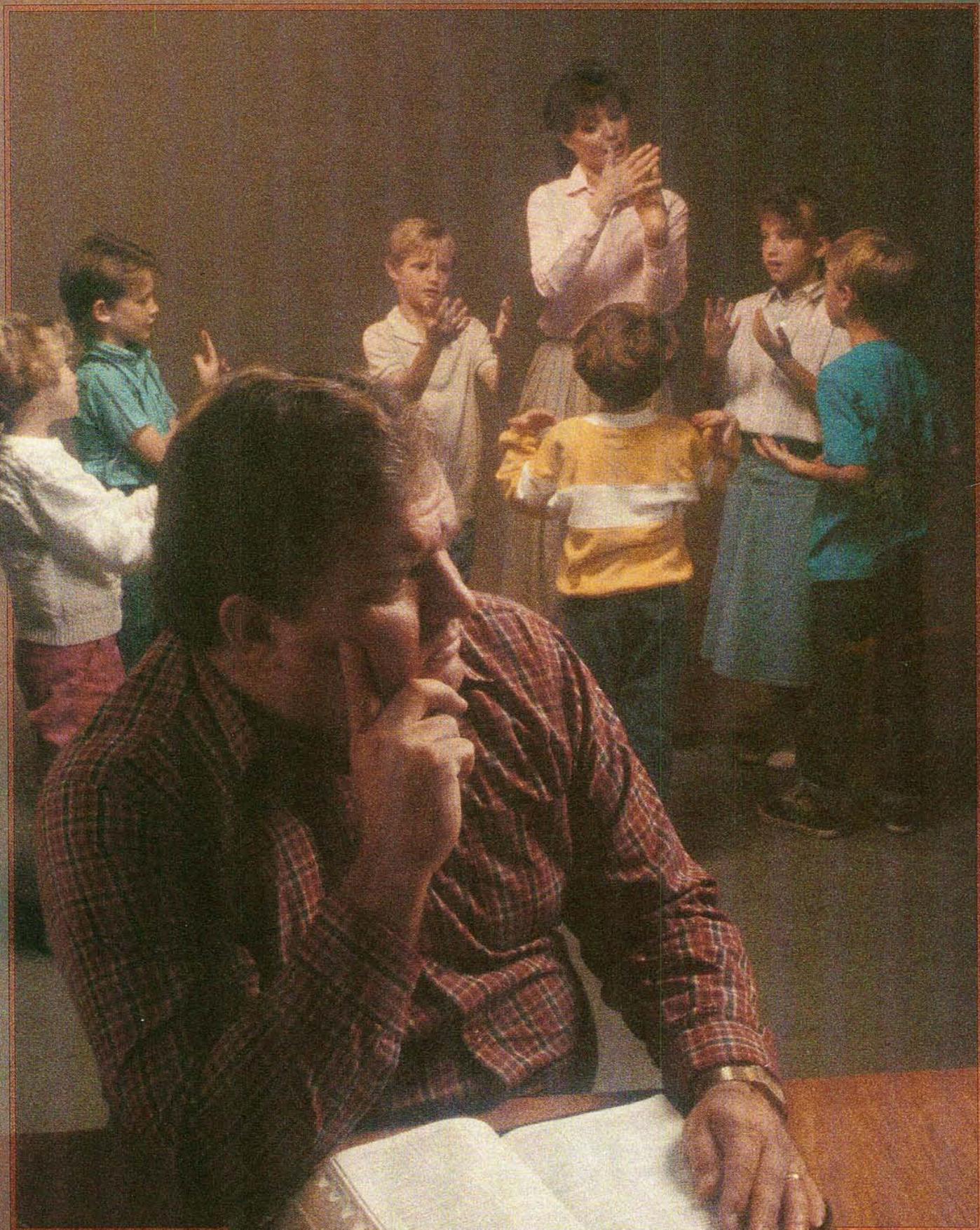
존경심과 관용은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경외감의 일부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더불어 그의 창조물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무례히 행치 아니” 한다는 사랑을 소유할 줄을 알게 되며(고린도전서 13 : 4~5 참조), 그럼으로써 우리는 구세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아름답고, 정숙하고, 우아한 여인은 창조물의 걸작품이다.” 하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말씀했다. “여인이 이러한 미덕 외에도, 자신의 생을 인도해 주는 별빛과 같이 의로움과 경건함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고자 하는 매혹적인 소망을 갖추고 있다면, 아무도 그녀가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 속에 끼이게 된다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것이다.”(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리니,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69년, 261페이지)□

방문 교육 교사를 위한 제언

1.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영향을 미친 경험에 대하여 말한다.
2. 자매들과 토론하면서, 훌륭한 모범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토론한다.

(가정의 밤 자료집에서 사랑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참조한다.)



결혼 생활에서 영을 구함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고자 할 때,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와 나누고자 하는 정을 좀더 쉽게 나눌 수 있다.

테렌스 디 올슨

“아 내가 것처럼 공격적이지만 않다면, 아내에게 좀더 잘 대해 줄 수 있을텐데.” 하고 존스는 생각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서로 거리감을 느껴 왔으며, 존스는 그와 그의 아내가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일체감을 다시 느끼기를 원했다.

존스는 그의 아내 메리가 변하기만 한다면 아내와의 가까운 관계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와 화합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 의문은 다른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니파이삼서 27 : 27 참조)

그 의문은 그의 마음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지난 토요일에 아내가 초등학교 모임을 위해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을 썼었던가를 기억했다. 그는 아내가 아들의 축구 게임에 늦게 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서 화를 냈었다. 오후 내내 그는 화가 점점 더 치밀게 되었으며, 것처럼 많은 시간을 아내가 모임을 위해 준비하는 데 보내는 것이 영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영을 느끼며 경전을 읽고 있노라니, 그 일이 다르게 생각되기 시작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했었는가? 그는 부름받은 아내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기꺼이 뒷받침해 주고자 노력했는가? 그는 자신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아내에 대한 그의 좋지 못했던 감정은 그의 이기심의 표현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것처럼 눈이 멀 수 있었던가 의아해졌다. 그에 대한 아내의 내조와 희생을 생각할 때 더욱 자책감을 갖게 되었다. 그가 화가 났던 그 토요일에도, 메리는 남편의 일로 그를 위해 타이프를 쳐 주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했다.

경전은 존스의 입장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림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요한일서 1 : 6)

존스가 결점 찾기를 뉘우치기 시작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자, 그는 영의 속삭임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 그는 이전에는 보지 않으려 했던 것, 즉 영적으로 향상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보았다. 성신은 그에게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아내와 화합하는 방법을 그에게 보여 주고 있었다.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고자 할 때, 남편이나 아내와 나누고자 하는 정을 좀더 쉽게 나눌 수 있게 된다. 영은 우리에게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배우자를 공격적이거나 또는 불의하거나 혹은 무감각하다고 이미 판단한 것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답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좋지 못한 감정으로 기도할 때 분명한 대답을 받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사실상, 우리가 시기심이나 원망이나 또는 분노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느낌을 느끼고 있는 한, 우리는 영적인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배우자 중에서 한 사람은 거룩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구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안되며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지만,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배우자편에서의 무관심한 태도와 “불순종”으로 인해 감정을 상하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 관대함과 운유함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는 거친 태도와 조급함과 심지어는 오만함이 자리잡게 된다.

혹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러한 반응을 정당화시키고자 할 수도 있다. “글쎄, 그건 불순종하는 배우자가 얼마나 큰 좌절을 겪게 되는가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관심하거나 아내 대하여 싸움을 걸 때는 주님의 충고를 따르기가 어렵게

합두 음병

이제 우리 시대를 향하여
이제 우리 시대를 향하여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때문만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훌륭하게 대처해 나갈 성신의 영향력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인다. 사실상, 우리가 영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환경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인한 것이다. 옛말에 “먼지는 자신이 일으키고 나서, 볼 수가 없다고 불평한다”는 말이 있다.

“당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소”

신디는 상호부조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며 눈물에 젖어 맥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공과를 부지런히 준비했으며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가르치고 난 후, 그녀는 홀에서 두 자매가 그녀를 비난하는 소리를 지나가다가 듣게 되었다.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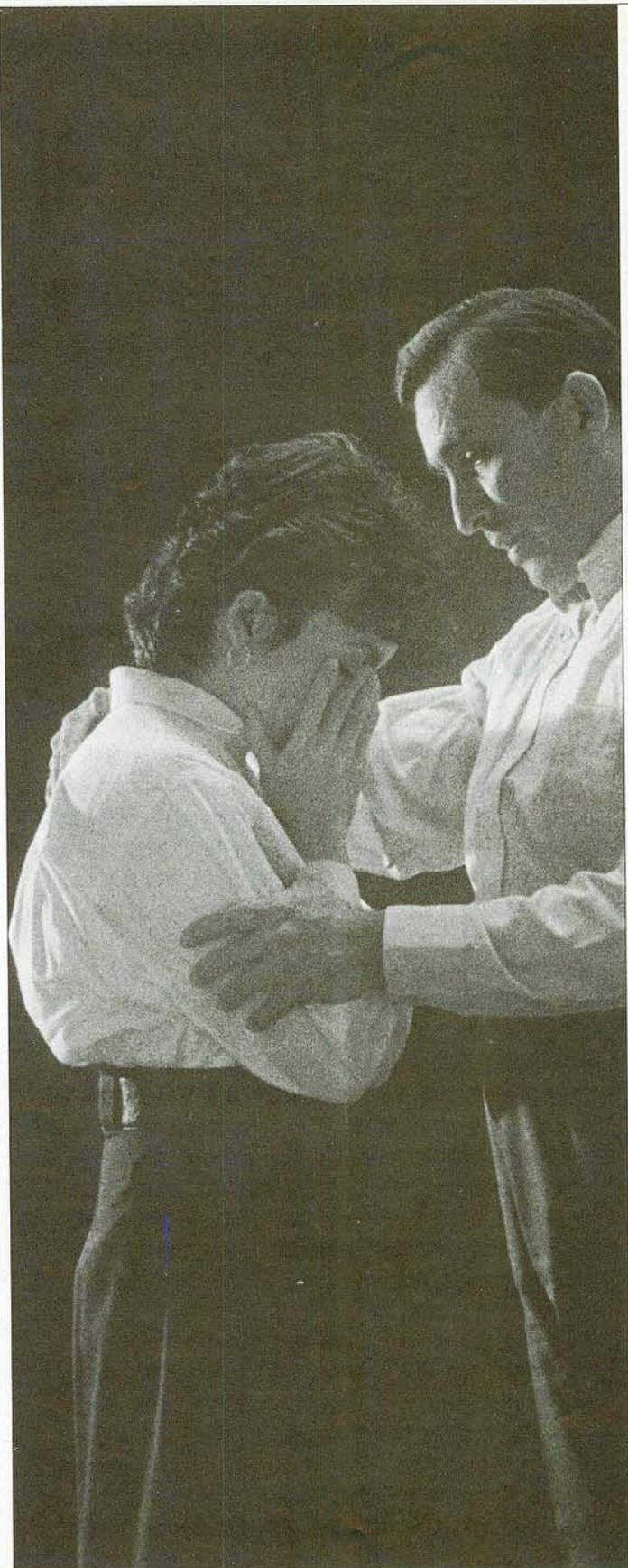
그녀는 일어난 일을 남편, 존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남편에게 자매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감독에게 해임해 줄 것을 청해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왜 영이 지시하는 것을 기다려 보지 않소?” 하고 그는 말했다.

신디는 낙심이 되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하고 그녀는 울부짖었다. “당신은 내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이나 하다니요!”

존은 아내와 말다툼을 할 수도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자매들이 자신을 비난했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똑같이 자기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지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난 당신의 적이 되고 싶지 않소.” 하고 말했을 뿐이었다.

신디는 주저했다. 그녀는 남편이 진정으로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체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존은 “생각해 보기 바라오.” 하고 말하고는 방을 나가 버렸다.

그는 자기 아내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과 아내가 현재 고통을 받는 것이 모두 마음이 안되었다. 아내의 비난이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그는 그것을 제쳐 두었다. 존은 아내가 취하고 있는 처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일을 그르칠 것인가를 직감했다. 다만 영만이 아내를 변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존이 한 일은 다만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주님은 각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답을 주신다. “당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소.” 존이 결국 아내에게 말했다. 그의 마음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난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믿고 있소. 아마도 당신이 마음을 상하게 된 것에 대한 해결책은 당신을 비난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일 것이오.”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말이 신디의 마음 속에서 자꾸만 맴돌기 시작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함을 인식하자,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거친 말투가 후회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이 후회스러워요. 그 자매들이 한 말에 내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 것도 후회스럽구요. 내가 상호부조회 교사로 성별되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오히려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영의 속삭임을 듣고 그 사실을 깨달은 신디는 다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자신이 가르친 자매들에 대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앞세움

결혼 생활의 일체감은 성령을 집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강력한 유도체가 될 수 있다. 부부들이라해서 모두 다 앞서 예로 든 부부와 같은 불일치로 인한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이 맺은 성약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들은 각기 상대방이 사랑과 관심의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앞세움으로 인해 영적인 인도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그러한 부부가 다른 부부들과 구분되는 것은 회복된 교회가 다른 교회와 구분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영의 인도하심과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영의 속삭임을 받는데 있어서 더 근본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외적인 행위로는 우리의 진정한 의도를 주님께 속일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일 뿐이다: “사람이 어찌 섬기지도 아니하며, 알지도 못하며 마음에 생각해 보지도 않은 주인을 알 수 있으리오?”(모사이사야 5:13) 개인적으로 영감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라는 영의 변함없는 권유에 기꺼이 응답하고 따라야 한다.

계시를 받기 위한 순종하는 생활에 대한 개념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위한 실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존스나 메리, 존과 신디의 경험으로 나타나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하게 그러나 부지런히 대가를 치를 때, 우리는 영의 속삭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부부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테렌스 디 올슨은 유타주 브리감 영 대학의 가족, 가정 및 사회학 대학의 부총장이다. 브리감 영 대학 제6 스테이크 부장단으로 봉사하고 있다.

최 근에 우리 신권 정원회에서는 기도와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친 역할에 대하여

토론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 장소와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결국, 우리는 기도에 관한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귀착했다.

주님께서는 수없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기도에 관한 나의 간증은 언제나 강렬한 것이었지만, 나는 이내 1968년 텍사스주 산 안토니오에서의 기본 군사 훈련 기지에서 있었던 경험이 떠올랐다.

나의 공군 훈련 그룹은 1019호 막사에 배치되었다. 그것은 양쪽 끝에 이중문이 달리고, 양편에 창문이 달린 전형적인 이층으로 된 군대 건물이었다. 그것은 모두 흰색 페인트 칠을 한

똑같은 모양의 수백 채의 다른 건물 속에 서 있었다.

내가 지정받은 침상은 뒤쪽으로 향한 이층에 있었다. 계단 위로 올라가면, 오른쪽에는 훈련 교관의 사무실이 있고 왼쪽에는 화장실이 마주하고 어두운 나무 바닥이 앞으로 곧게 나 있었다.

나의 침상의 다리는 똑같은 모양의 삼십 개의 다른 침대와 나란히 서있었다. 내 사물 트렁크는 내 침대 머리맡에 있었다. 나는 아래 침상에서 잤다.

내 위의 침상에서 자는 사람은 윌리엄이었다. “윌리” 윌슨은 키가 작고, 건강하게 생긴 흑인으로 미국 남부 지방에서 자라난, 종교관이 투철한 좋은 친구였다.

캠프에 들어온지 첫날부터 나는 전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바라크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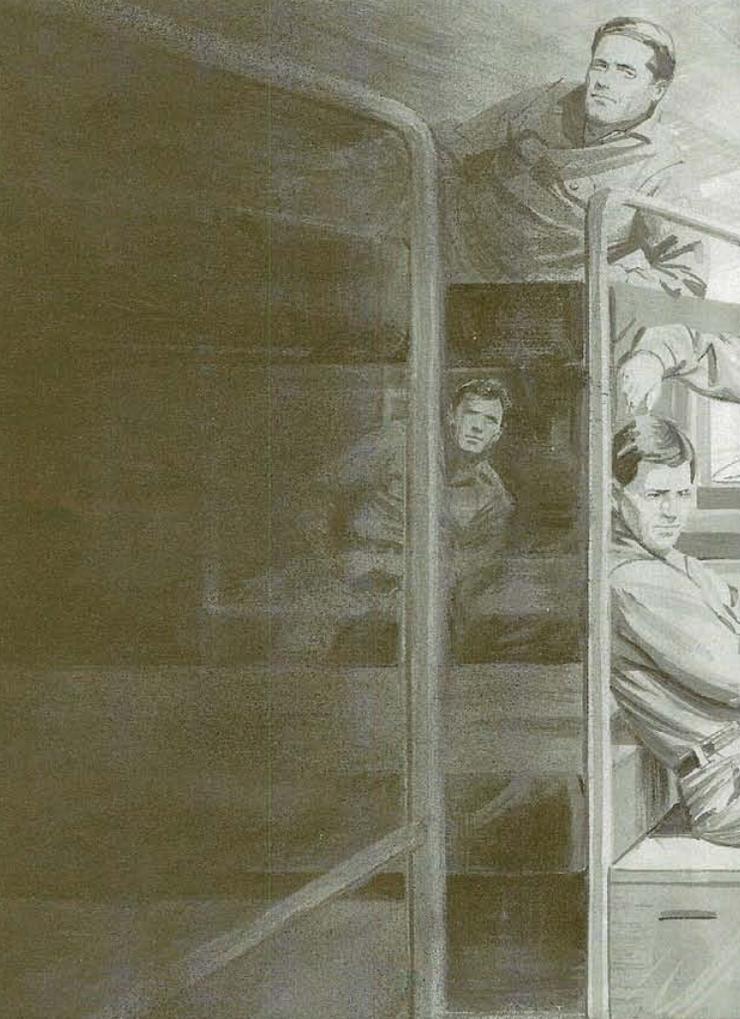
첫날밤 나는 불이 꺼지기를 끈기있게 기다렸다. 아홉 시가 되자 훈련 교관 사무실에 있는 타이머의 조정으로 전기불은 자동적으로 꺼졌다. 전기불은 매일 아침 4시 45분에 다시 들어왔다.

9시 20분 경에, 나는 재빨리 조용하게 침상에서 빠져 나와 무릎꿇고 기도드렸다. 나는 하나님에게 내가 방해받지 않고 기도드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했다.

우리는 모두 침상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플래시를 켜놓고 군화를 닦는 사람에 라이터 불을 켜고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었다. 대부분은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1019호에서의 기도

존 비 피시



기도를 마치고 난 나는 윌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만히 침대 속으로 들어가고는 했다.

일주일 가량 나는 매일 밤 그렇게 했다.

첫번째 안식일 아침, 우리는 여섯 시까지 잠을 잘 수 있었다. 여섯 시 몇 분쯤 지났을 때, 나는 계속 잠을 깨려고 애쓰면서 침대가에서 줄며 앉아 있는데, 훈련 교관인 브래드버리 상사가 방으로 들어 왔다.

그는 딱딱하게 소리쳤다. “오늘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 있나?”

“네, 상사님.” 하고 내가 소리쳤다. 막사 안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

“내 사무실로 와라, 피시.” 하고 그가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그 첫째 주일에, 우리는 모두 어떤 일에도 결코 자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던 것이었다.

“너 실수한 거다.” 내가 윌리 곁을 지나갈 때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상사의 사무실에 가서 나는 보고했다. “공군 병사 피시가 명령대로 보고드립니다.”

“쉬어,” 하고 그가 말했다. “앉아라.” 나는 들은 대로 했다.

“자네 무슨 종교인가?” 하고 그가 말했다.

“말일성도입니다, 상사님.”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몰론입니다, 상사님.” 하고 내가 설명했다.

“아,” 하고 그가 조금 웃음을 띠었다.

“내게 몰론인 좋은 친구가 한 사람 있지.” 그는 내 허락을 받아 말하기라도 하는 듯, 조금 미안해 하며 말했다. 나는

머리를 끄덕여 수긍을 표했다.

“자네 교회가 어디서 모임을 갖는지 아는가?” 하고 그가 질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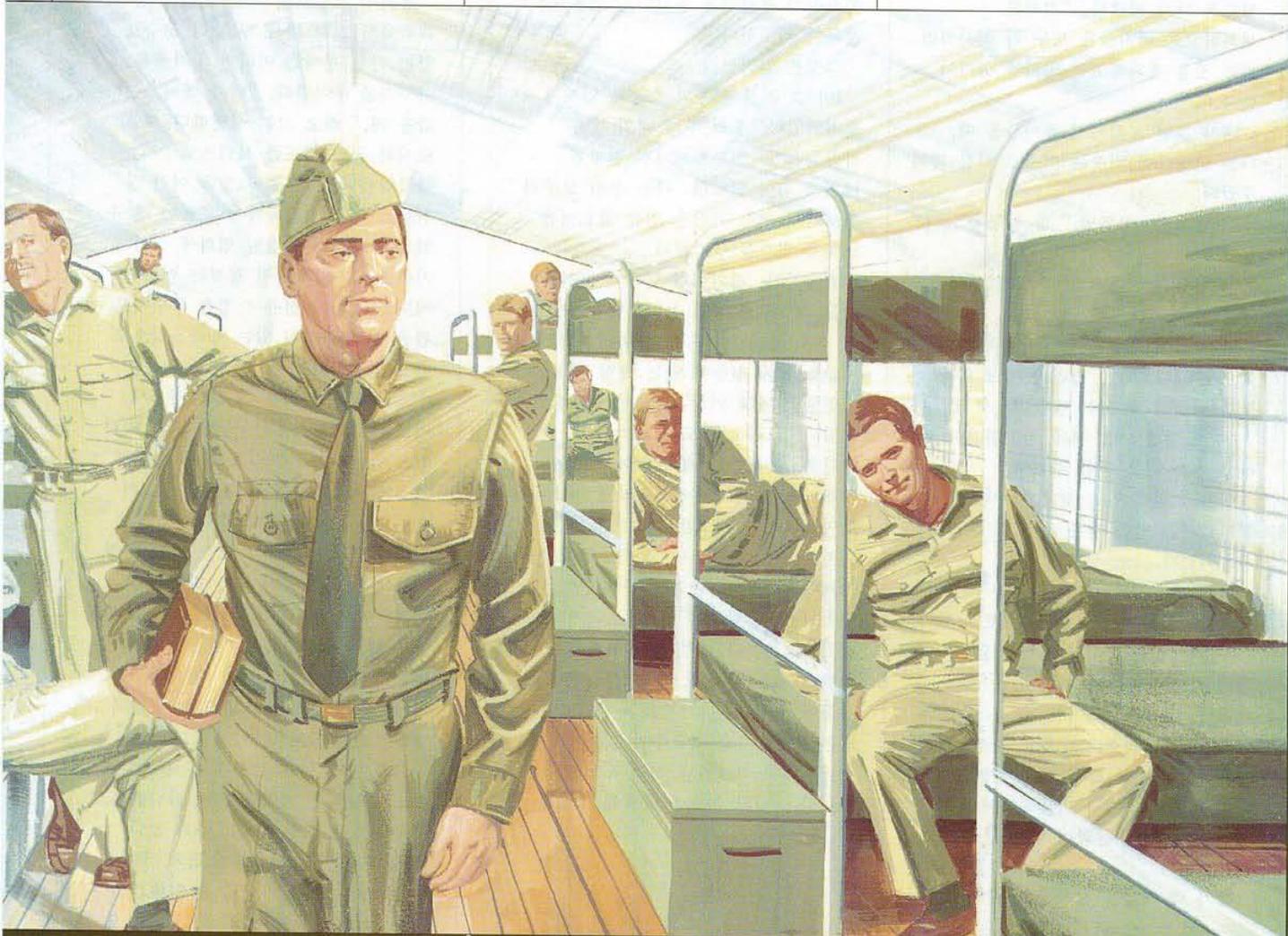
“모릅니다, 상사님.”

그는 책상 설함을 열어, 캠프 지도를 펴 놓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 주었다. 그는 또한 나에게 캠프의 군목의 이름도 알려 주었으며, 나는 상사의 사무실에서 그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성의껏 도와 주었다. “신권회 모임은 아홉 시에 시작합니다.” 하고 그는 내게 말했다.

필요한 모든 지시를 받고 나서, 나는 가만히 전화를 내려 놓자 브래드버리 상사가 말했다. “이제 가도 좋다. 여섯 시까지 돌아와라!”

“예, 상사님!”

내가 병크로 반쯤 돌아왔을 때 브래드버리 상사가 모두 다 들을 수



내가 그날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 다른 군인들이 “안녕하쇼, 군목님. 하나님은 어떠시대?” 하고 나를 맞아 주었다.

있도록 다시 말했다. “피시를 제외하고는 너희들은 모두 다 식사하러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막사에 있어야 한다.”

내가 그날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 다른 군인들이 비웃는 어조로 나를 맞아 주었다.

“안녕하쇼, 군목님.” 한 친구가 말했다.

“하나님은 어떠시대?”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는 그저 웃음을 띤 채 내 병크 쪽으로 갔다. 나는 윌리가 병크 위에 누워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가 말했듯이, 자네 실수한거야.” 하고 그가 나를 맞아 주었다.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이 실수한 것이었다는 말을 들은 것은 내 생전 처음이었다.

나는 옷을 갈아 입고 저녁을 먹으러 갔으나—윌리만이 내 옆에 앉으려 했다.

우리는 일요일 저녁을 책을 읽고, 편지를 쓰든가 기타 다른 일을 하며 보냈다.

지난 주 규칙적으로 행한 대로, 나는 아홉 시 십오 분 경에 다시 한번 조용히 내 침대에서 일어나 어둠속에서 무릎을 꿇었다. 전과 다름없이 막사 안은 계속 시끄러웠다.

내가 막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낮익은

목소리가 분명하게 울렸다. “조용히! 군목이 기도한다.”

그것은 윌리였다.

1019호 건물 윗층의 소음은 일시에 중지되었다. 우리 부대 내의 많은 사람들은 곧 인도차이나로 전투를 나가게 되어 있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기도에서 오는 위안을 얻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실감했다.

전체적인, 경외어린 함의에 따라, 나는 그 후 육 주일 동안, 매일 밤 아홉 시 십오 분이면, 내 침대 밑에 서서 1019호 건물 윗층에 있는 육십 명의 군인들을 위해 이삼 분 동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몇 분간은, 우리는 군대의 일이나 철차 따위와는 멀리 떨어진, 거룩한 성소에 모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기도를 마칠 때마다 언제나 조용하게 “아멘” 하는 소리나 많은 사람들이 더 큰소리로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내가 사실 일 동안 그곳에서 서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는 동안, 우리는 모두가 같은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신시아 엠 가드너는 프로보 유타 제25와드에서 상호부조회 교사로 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역시 프로보 성전에서 일한다.

리

차드 카윈은 장님이기 때문에, 어디든 전에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 보고자 할 때에는, 그는 보통 그 지역의 특별한 지도를 만든다. 그는 그것을 “선을 올려 세운 지도”라고 부르며,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하여 희한한 안내자가 된다. 그의 지도에서 하이웨이는 줄로 연결되고, 거리는 가는 실로, 강물과 공원은 서로 질감이 다른 천으로 덮여진다. 모든 관심 사항이 촉감이 다르게 되어 있다.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에서 교회 역사 및 교리 교수로 있는 카윈 형제는 이러한 창작품을 나누기를 좋아한다. “내가 멕시코시티에 갔을 때,” 하고 그는 설명한다. “그 도시와 군의 지도를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 장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장님 협회에 기증했습니다.” 카윈 형제는 이러한 지도를 원래의 섬유 느낌을 주면서도 훨씬 더 내구성이 있는 플라스틱으로 다시 만들었다.

그의 방향 감각은 그 토대가 되는 지도를 능가한다. 친구들은 그가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곳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아는 그의 초인적인 능력을 말해 준다. 잘 아는 거리를 가게 될 때는, 그는 차의 운전 기사에게 “신호등이 있는 다음 네거리에서 우회전하십시오.” 하고 말할 때도 많이 있다. 혹은, 다른 주에서 온 방문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는 방향에 대하여 말하기도 한다.

그의 아내 던은 그가 빠른 걸음 속도로 낮익은 지역을 혼자 다니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걱정할 때가 많다. “그는 지팡이를 사용하려 들지 않아요.” 하고 그녀는 말한다. “그는 안내견을

비상한 시현을 지닌 사람 리차드 카윈

신시아 엠 가드너

데리고 다니려 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걸음을 늦추려 하는 법도 없습니다. 나는 그가 돌발적인 어떤 일이 생겨 그것에 말려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어린 시절에 리차드 카윈은 인생에 대한 설계를 했으며 실명을 한 것으로 좌절하지는 않았다. “나는 조금 볼 수 있어요.” 하며 그는 자신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검은 세상이 아니라 회색이라고 말한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나는 어린 시절에 겪는 평범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게 책을 읽어 주셨고, 아버지는 매우 협조적이셨습니다. 십대 초에 나는 ‘시력 보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글자를 크게 인쇄하고 조명의 밝기를 훨씬 강하게 하는 것이었으나, 나에게 그다지 소용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내용을 대중 읽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점자 프로그램에 들었습니다. 나는 한 학기를 마쳤으나, 그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한 지도의 개요는 그가 열 다섯 살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려졌다. 그는 자신이 시온의

아름다운 딸과 인봉될 것이며 구원을 전파하는 음성을 높이고 글을 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가 1953년에 스페인계 미국 선교부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점자의 사용을 경멸했으나, 선교부에서는 달랐다. “나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여 학생들이 더 빨리 쓰기 위하여 사용하는 점자 속기 3급을 익혔습니다.”

그러한 결정의 결과는 곧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다른 종파의 목사와 토론을 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카윈 형제는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 그의 속기 경전을 무릎에 올려 놓고 있었다. 목사는 결국 카윈 장로가 경전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렇습니다” 리차드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를 표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지도의 바탕을 향상시킨 다른 중요한 결정은 그의 선교부장과 방문 총관리 역원인 클리포드 이 영 장로가 이끈 지방부 대회에서 정해졌다. 그 모임에서, 카윈 장로는 성령의

영향력을 너무나 강하게 느껴 이렇게 자문했다. “이러한 느낌을 항상 가질 수 있게 하는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에게 그 대답은 즉시 왔다. “브리감 영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라.” 그날 오후, 그는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았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일 년 이 개월을 기다린 끝에 “시온의 아름다운 딸”-던 후턴 자매를 만났다. 그 후 삼 년 동안에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에서, 던이 그에게 읽어 주는 것으로, 그는 스텐포드 대학에서 역사학의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에 리차드 카윈은 그가 교사로서 성공할 수 없으리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리감 영 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사 년 뒤에 그는 학생들에 의하여 올해의 교수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그는 이십 팔 년간 그곳에 있다.

카윈 형제는 끊임없이 글을 쓰는 저술가이다. 그는 저서도 있고, 교회와 관련된 여러 주제로 기사도 냈는데, 그 중에는 신혼 여행 때 쓰기 시작한 것도 있다. 그는 현재 주일학교 과정 공과를 이루는 교회 복음 교리반 저술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함께 일하기에 기분좋은 사람입니다.” 하고 한 위원은 말한다. “그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서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행복하게도 그의 가장 훌륭한 팬은-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그의 아내 던이다. 카윈은 딸 넷에 아들 둘의 여섯 자녀를 두고 있다.

리차드 카윈은 그의 어린 시절에 - 분명하게 본 지도의 인도를 받고 그 이후 계속 헌신해 온 영생을 얻기 위한 일에 자신을 바치고 있다. □

바다의 신성함을
영광스럽게



라일락 꽃나무

게리 윌튼

나는 불순종이나 반항으로
인해서 복음 생활을 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심한 의학상의 상태로

인해서, 나는 주님의 양떼로부터
떨어지게 될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었다.

여러 달 동안 병을 앓고 입원을 하고
난 뒤에, 나는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했으며, 상당히 외로움을 느꼈다.
회원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복음과
지도자와 가족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간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분명히 느꼈던 그와
같은 확신과 평안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그러나 나의
육체적인 상태로
인해서 나의 영적인
감각은 무디어졌다.

그때 밴스 형제가
회중석에 있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크고 긴장하며, 손수
무슨 일이든 잘해 내는
할아버지같은 그는 그의
아내에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라일락 꽃나무가
자라는 것에 대하여 주님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그 나무는 너무 크게 자라
밴스씨의 조그만 집에 드는

햇빛을 막아 버리게 되었다. 밴스
형제는 그의 아내에게 그 나무를 싹둑
잘라 버리고 뿌리를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나무가
살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의 결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는 힘들기는 하지만, 정성을 기울여
가지를 자르고 새로운 장소에 흙을
고르고, 결국은 뿌리를 파내어 그것을
심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같이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고, 새 생명이 나는 표적을 살펴
보았다고 말했다. 새롭게 성장하는
기미를 보지 못하게 되어, 그는 아내가
아끼는 나무를 죽인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다. 그가
아내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땅에서 돌보고 있던 뿌리를
키우는 것에 더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

드디어 어느 날 아침 일찍, 그는
뿌리가 살아 자라는 증거가 되는 파란
잎을 찾아내곤 안심하게 되었다. 그는
아내를 데려 와 라일락을 보여
주고는 그의 수고의 결과 자라게
된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밴스 형제는 그런 다음
우리는 대부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 약하게 되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처지에 놓일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는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뒤로



고통스런

처지게 하시거나 낯선 이국의 땅으로 보내실 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래의 영광 예전의 흠을 그대로 지니게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을 극복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할 때, 전혀 도전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강하고 주님께 더 가치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두려움과 고통의 때가 우리 생활에 닥치게 되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연구할 때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 분명해지게 되며, 문제점에서 새로운 힘과 목적을 찾게 된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약점을 보여 주며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이더서 12:27)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영이 밴스 형제의 말씀이 진실함을 나에게 증거해 주었으며, 이 새로운 개념은 나에게 신체적 영적인 힘을 되돌리는 노력을 계속하는 힘을 갖게 해주었다.

여러 달 뒤에, 나는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와드에서 세미나리를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았다. 나의 경험으로 인해, 나는 복음을 더욱 열성껏 공부하게 되었으며, 새로 찾은 힘을 와드의 청소년에게만이 아니라, 비활동화되려는 몇몇 다른 회원들과도 나누게 되었다.

이제 나는 새로 시작하는 일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될 때마다, 목적을 가지고 가지를 치는 것에 관한 밴스 형제의 이야기를 상기해 보고자 애쓴다. 그것은 더 넓은 시야에서 나의 어려움을 보는 데 도움이 되며, 내가 주님과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케리 윌튼, 카스튼 앨버타 스테이크, 에트너 와드 회원, 초동협의회 헌임 역원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다.

1973

년에, 남편과 나는 교회에서 한 연사가 교회내에서 최근에 회원 자격 정지 처분과 파문이 얼마나 증가되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조용히 앉아서 들었다. 나는 내가 성전 결혼을 한 것과 간증과 교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머리를 슬프게 가로 저으면서도, 그 당시에는 나의 미래가 그러한 과정에 의하여 처참하게 영향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추호라도 생각지 못했다.

그로부터 칠 년 후 활동적인 맵시세덱 신권 소유자이며, 귀환 선교사이고, 감독단을 역임했고, 여섯 자녀의 아버지인 나의 남편이 교회 재판에 소집되어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 나의 생활은 급격히 변화되었다.

나는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거부감과 배반감 그리고 놀라움을 느꼈다. 내가 해답을 찾고자 주님께 나의 심정을 토로하였을 때, 나는 이 뼈아픈 경험으로 내게 도움이 된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되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은 자비롭게도 정서적, 영적으로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나는 나의 고통이 내가 재판정에서 징계를 받았다면 느꼈을 것보다 더 극심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모든 것을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자 노력했다. 나는 복음에 대한 간증이 강한 훌륭한

젊은이와 결혼했으나, 이제 나는 배반감을 느꼈다. 그는 변했으며, 나는 그 사태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다. 나는 아픈 신권을 받을 나이가 되어 오는 우리의 어린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으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귀중한 신권을 그에게 수여해 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 난감했다. 또 한 아들은 얼마 안되어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해명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교회 회원들을 대하기조차 두려웠다. 나는 나 자신과 아이들에게 행복을 확인시켜 주려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마치 악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슬픔과 실망을 헤치고 나가는 길을 찾은 것이 결국은 직장 생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누구에게인가 말을 해야 할 필요에서, 나는 주님에게 도움과 위안을 구하게 되었다. 그분은 나의 사랑하는 상담자가 되었다.

그보다 몇 년 전에, 어린 아들의 사망으로 나는 나 자신을 비난하게 되었다. 이해심 많은 의사 선생님은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현명한 충고를 들려 주었다. 비탄에 잠긴 사람은 자연히 비극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당신 자신을 비난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고 그는 충고했다.

교회 재판이 있은 후에, 나는 나 자신이 다시금 이 함정에 빠지게 된

성장

남편이 회원 자격 정지를 받았을 때,
나는 주님에게 나의 생의 의미를
되돌려 주실 것을 기도했다.

것을 알게 되었다. 점차 나는 내가 남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나 스스로가 조종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항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나는 상황만이 아니라 나의 남편도 똑같이 받아들이기로 노력했다. 나는 우리의 영적인 과정을 다른 부부와 비교해 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모범적인 아버지나 남편들에 관한 것을 읽게 될 때, 여전히 좌절감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말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정은 다르다. 주님은 나의 것으로 나를 도와 주실 것이다.”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표할 때, 나의 내부에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증가되었다. 그와 함께 우리 전체 가족의 태도도 향상되었다. 놀랍게도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고 더 평화로운 때를 갖게 되었다.

때때로 나는 남편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껴, 어떤 축복을 구하기를 주저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이내 내가 염려하는 것을 없애 주셨으며, 여러 해가 지나는 사이에 물질적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다.

우리가 회원 자격 정지의 경험을 하게 됨으로 인해 나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파괴되었다. 나는 와드의 한 보조

조직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매주 여러 시간을 분주하게 보냈다. 그런데 주님께서, 혹은 그 일로 인해 감독님이 과연 내가 그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감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신체적인 면에서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러나 나의 해임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나는 그 직책을 그대로 맡고 있었다. 나는 후에 이것이 나의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내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에 우리 자녀들도 학교 안이나 밖에서 계속해서 잘해 주었다. 여기서 주님은 내게 우리가 부모로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었다. 이 경험은 나를 격려해 주고 나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었다.

일주일이 가고, 한달이 지나고 해가 바뀔에 따라, 고통이 때로는 작아 지기도 했다가 때로는 점점 더 강해 지기도 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주제를 피해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을 떨쳐 버릴 사람은 별로 없었으므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진심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묻고 내가 말하는 것을 참을성있게 들어준 친구에게 언제나 감사할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위안하고 가르쳐 주셨다. 나는 남편이 변화를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할 때가 많았다. 예외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비난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셨다.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스럽게 관용에 관한 성구를 인용해 주셨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 아내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상기시켜 주셨다. 나는 교리와 성약 25편에서 주께서 엠마에게 남편을 돕고 위안해 주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엠마에게와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 편을 여러 차례 읽었으며, 그 때마다 남편의 가치를 더욱 믿게 되었다.

나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했다. 주님은 평상시와 같이, 그러나 실제적인 면으로 응답해 주셨다. 나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바치는 기회를 찾았다. 남편이 일년 동안에 세 번의 작은 사고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멀리 내다 보지 않아도 되었다. 그가 집에서 잠시 쉬며 회복기를 보내고 있는 동안에 나는 감정적인 보호와 관심을 베풀어 주었다. 나는 남편에게 더 큰 사랑과 감사를 보여 여러 번 보상을 받았다.

나는 또한 내가 봉사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남편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그를 내 관심권의 중심에 두고자 노력했다. 그에게 긍정적이며 또는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이 처음에는 하기 힘들더니 차츰 몸에 배게

되었다. 나는 또한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를 비난하는 것을 삼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소한 노력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죽어가는 초목이 다시 빛과 양분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다시 힘을 찾게 되었다.

나는 모사이아서 이십 칠 장에서 커다란 위안과 희망을 찾았다. 여기서 엘마 이세의 아버지의 신앙과 기도로 인해 그에게 한 천사가 나타난다. (8~11절 참조) 이 성구를 통해서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다. 나는 반드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기로 했다. 더욱 힘들기는 하지만, 중요하기도 한 것은 언젠가는 그의 태도가 변할 것이라는 신앙을 간직하는 것이었다.

내가 또한 발견한 것은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교회 재판이 있는 직후, 나는 갑작스럽게 남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수용적인 태도로 가득 차게 되었다. 나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그를 돕고 지원해 주기를 바랐다. 이러한 애정어린 느낌은 내가 언제나 그것을 위해 왔음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나는 모로나이가 “참된 마음으로...이 사랑으로 충만하게”(모로나이서 7:48)되라 한 대로, 정규적으로 기도했다.

남편은 이제 교회에 복권되었다. 많은 면에서 좋은 면으로 변화되었으나, 복음에 대한 헌신과 활동에 대한 영적인 소망은 아직도 되찾아야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만이 그러한 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이제 나는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또한 내 인생의 가장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가장 크게 성장했음을 알았다. □

편집자 주: 저자의 요청으로, 그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마크 로빈슨 그림



질문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임.

화석에서 나타나는 지구의 역사는 경전에 나타나는 지구의 역사와 어떻게 들어 맞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리스 에스 피터슨,
브리검 영 대학 지질학 교수 및
프로보 유타 동 스테이크 부장

지구의 창조와 초기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전 기록은 극히 상세하지 않으며, 과학의 기록은 불완전합니다. 사실상, 지구 역사에 관해서 현재 우리가 참된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더 큰 지식에 비추어 볼 때 부분적인 면에서만 참된 것이라고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모든 일을 드러내”실 날이 오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곧 지난 날의 일이나,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하게 감추인 일이나, 피조된 이 세상 일과 그 목적과 종말을 드러내리라. “가장 귀한 일이나, 하늘 위의 일이나, 하늘 아래 일과 세상의 일과 땅 위의 일과 하늘의 일들을 드러내리라.”(교성 101 : 32~34)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경전에서 가르침받는 것에 그리고 과학에 의해서 수집되고 조사된 것을 토대로 우리가 침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 경전과 세상적인 지식을 양쪽 다 찾아 보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이해하면 유익한 이론과 원리와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일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과...”(교성 88 : 78~79) 말일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인간에 의하여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고, 또는 앞으로 알려지게 될 모든 진리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의 확신을 함께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우리의 화석에 대한 연구와 그것을 경전 기록에 비교하여 보는 몇 가지 결론을 잠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지구와 지상 위의 모든 생물의 조물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하나님이...움직이는 모든 생물을...창조하시니...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 : 1, 21, 31)

하나님이 지어내신 생물의 형체 중에는 지금은 멸종해 버린 많은 종이 분명히 있었읍니다. 화석이 나타나 있는 바위는 지구 위의 어느 곳이나 흔히 있으며, 이러한 화석은 전에 살았던 동식물을 나타내며, 지금도 바위 표면에 일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화석이 나타나 있는 암석층을 조사해 보면, 명확하게 지정된 형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지질학자)는 1931년 11월 21일자 테저렛 뉴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읍니다.

“지질학자는 동식물체의 아주 간단한 형태에서 보다 복잡한 다른 종류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파괴해 버릴 수 없는 바위의 기록에서 그들은 생명체가 간단한 데서부터 보다 복잡한 데로 진행해 나갔음을 알아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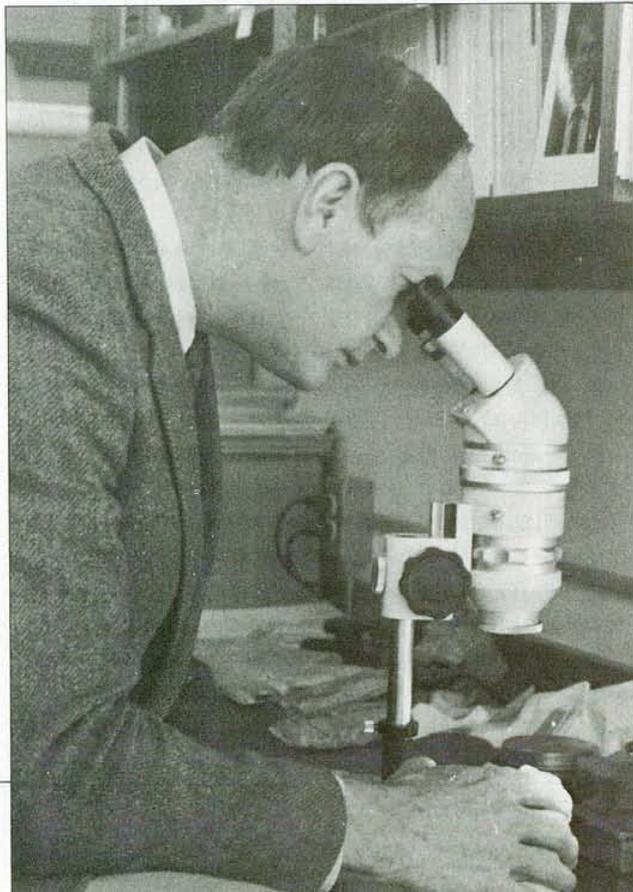
화석이 발생하는 순서는 전 세계에서 침전암에 계속 나타납니다. 더 나가서, 그것이 호주에 있든지, 아프리카나 유럽, 미대륙 또는 기타 어느 곳이든지 지상에서는 여러 형태의 생명체가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읍니다. 경전을 충실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것은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지구상의 생명체의 창조의 순서는 첫째는 식물이었고(창세기 1 : 11~12), 그 다음이 동물(창세기 1 : 20~23)이라는 사실은 화석의 기록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식물 화석이 동물 화석보다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치점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을

답응 의식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언자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주제에 관하여 계시해 주시는 것을 이미 다 계시하셨다고 우리가 추정할 때이거나, 새로운 것이 발견될 때 과학적인 이론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 버릴 때입니다. 우리는 경전이 주어진 목적과 과학적인 방법의 목적을 함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의 속죄를 통하여 구원과 승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간증합니다. 경전은 왜(반드시 어떻게가 아니라) 지구가 창조되었으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어떠한 율법과 원리를 따라야 하는가를 보여 줍니다. 반대로, 과학의 목적은



어떻게(왜가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었는가를 알고, 현 세상을 지배하는 율법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종교가 맡은 서로 다른 역할은 공룡의 연구에 나타나 있습니다. 화석의 기록에서 보면, 공룡은 2억 2천 5백만년에서 6천 7백만년 사이에 지상을 지배한 동물이었다는 이론이 섭니다. 어떤 종류는 고기를, 어떤 것은 식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작은 것이 있는가 하면, 큰 것도 있어 무게가 72톤이나 되고 길이가 27미터도 더 되게 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물이 존재했음은 그들의 잔재가 온 세상의 암석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창조와 세상의 초기 역사에서 그들이 맡은 영원한 목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전에는 공룡을 주제로 한 이야기는 없으며, 과학의 목적은 그들이 왜 여기에 있었는지 설명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탈매지 장로의 말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뿐입니다. “백악층과 대부분의 심해의 석회석 층에는 전반적으로 동물의 뼈 잔재가 들어 있다. 이러한 동물은 지구가 아직 인간이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여러 시대에 걸쳐 살다가 죽어 갔다.”

경전과 현재 과학 안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 사이의 관계는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지상에서의 생명의 역사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워 나가며, 우리는 연구가 진척되어 감에 따라 더 많은 것이 알려지게 될 것임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경전의 구절을 과학적인 연구의 특별한 부분에 끼워 맞추려는 노력은 여러 세기 동안 당면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이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것은 내일의 발견으로 수정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내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는 것만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 줄 것입니다—이 생에서가 아니라면,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구원의 의식을 받고 또한 진보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창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전과 영감받은 예언자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이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데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씨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의 작품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일성도 지질학자인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창조하신 증거로 암석과 화석을 연구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스스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창조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알게 된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게 하실 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더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세계의 비기독교 종교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브리감 영 대학-하와이
캠퍼스 아카데미스,
알 러니어 브리취 부원장

1975년에 나는 교회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젊은이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힌두교 그룹에 속해 있었으며, 힌두교에서 많은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답장에서, 진리의 편린을 하나 이상의 교회나 또는 종교 단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 이상하게 여겨지는가보다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말일성도들이 유일한 참된 교회라고 주장할 때 왜 다른 종교 단체 역시 자체내에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진리를 찾게 된다 해서 절대 놀라서는 안됩니다...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사람 안에 내재해 있으며, 정직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선행의 보상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교리와 성약 130편 20~21절을 인용했습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그런 다음 나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 영원한 원리에 순종한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그 율법에 따라 생활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들의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일성도는 많은 종교와 철학에 진리가 들어 있음을 참으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훌륭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백성에게 영적, 도덕적 및 윤리적인 이해를 높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유일한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의식을 집행할 권능을 가진 유일한 조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예언자와 사도들의 지상의 성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도되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참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진리를 가르치는 유일한 교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초기 시절 이래, 여러 총관리 역원들이 비 기독교 종교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조를 관용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978년 2월 15일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과 그의 보좌,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과 앤 엘든 태너 부대관장으로 구성되는 대관장단은 다른 종교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모하메드나 공자나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 같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및 기타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빛을 일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덕적인 빛을 주시어 온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이해의 수준을 더 높이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예언자들은 복음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길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진리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생애에서나 다음에 올 세상에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충분한 지식을 갖게 해주셨으며, 또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시대에 주님의 교회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지상 생활의 행복과 영원한 충만한 기쁨을 주는 유일한 방편이 됨을 선언합니다.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생애에서 아니라면, 이 후의 세상에서 그들에게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메시지는 종교적인 신조나 인종이나 민족성에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참된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인간의 영원한 복지에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 줍니다.

- (1)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 (2) 충만한 기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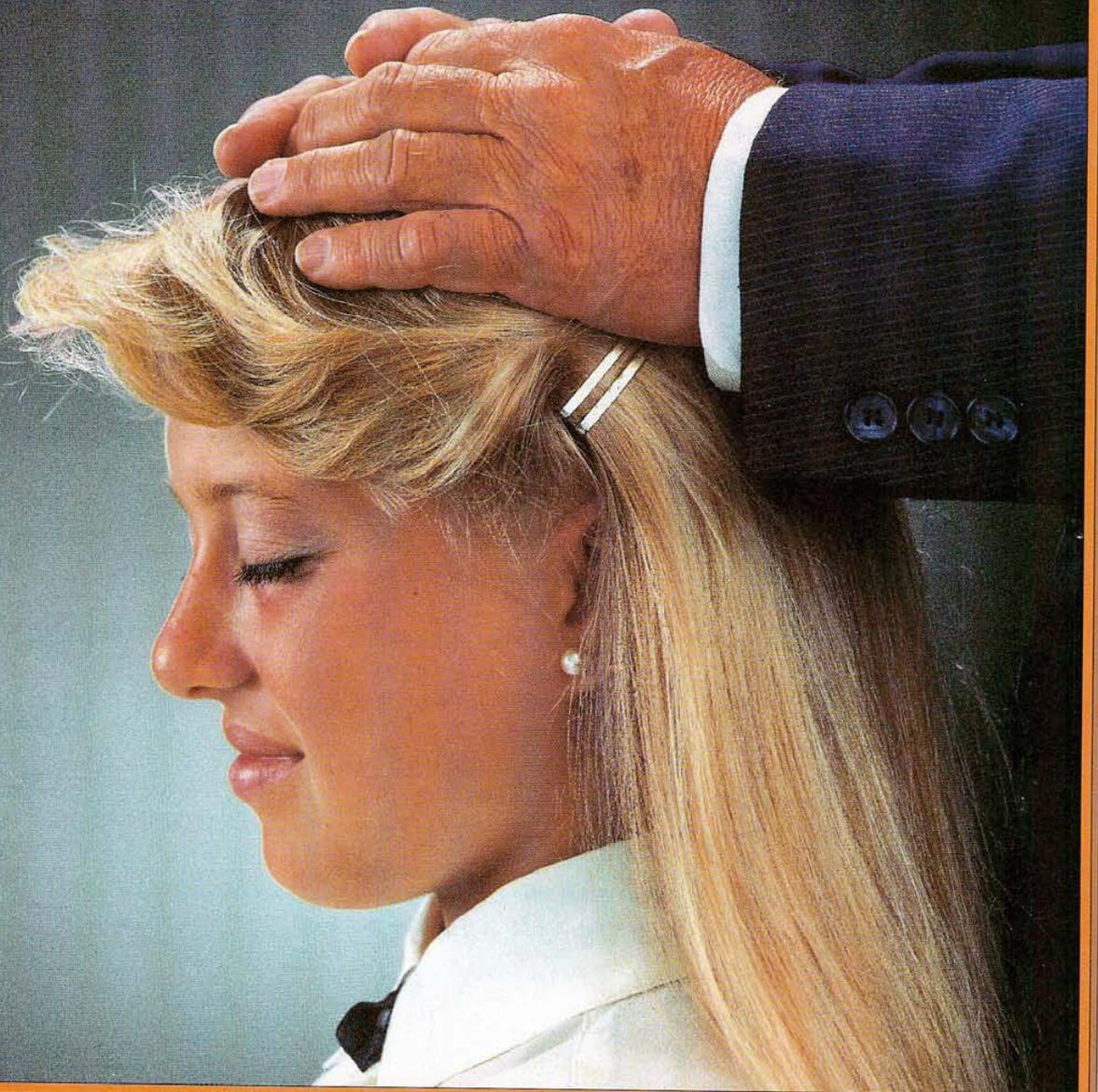
교회의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3) 모든 사람은 이 지상 생활에서가 아니라면 앞으로 올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4) “세상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특별히 선언문에서 언급된 사람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일부” 받았습니다. 확실히, 모하메드는 그의 국내외에서의 종교적인 이해심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윤리적인 인식을 증가시켰습니다. 공자는 동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상에 존재해 있던 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개념을 아시아 사람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고 또는 용납할 수도 없는 다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진리란 미신이나, 마술 또는 그릇된 것과 병행되어 나가는 것으로 흔히 생각됩니다. 많은 종교 내에서 인간은 분명히 가치있고 영원한 진리가 포함되는 윤리, 교리 또는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옳지 못한 교리를 찾을 수도 있고, 어둠의 권세로 영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연구하면서 이와 같은 진리와 오류의 혼합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종과 나라와 혈족과 방언의 선한 백성들이 진리와 합당한 생활 방식을 깨닫고 그러한 진리를 나누고자 노력해 왔기 때문에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는 반대급부로 회복된 복음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세상의 종교에 대하여 우리 말일성도들은 모든 종교인들에게 우정과 선의의 태도를 길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관장단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모든 인간의 영원한 복지에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사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 나님 아버지께서 이 생에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기에 합당한가를 우리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이곳에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구세주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개인별로 우리에게
특별한 지침을 마련해 주시는가?

물론 그러하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 계시는 축복사의 축복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축복사의 축복은
사람의 재능과 혈통과 잠재 능력을 알게
해준다. 그것은 동기 부여가 되며,
지침이 되고, 경고와 권고와 위안이 될
수 있다.

축복사의 축복은 영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영적인 이정표이므로,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그것이 주어짐은 우리가 거룩한
시각에서 영원한 존재를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곳에 기술된 개인적인
축복은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축복사의 축복은 축복사로서 성임받은
사람에 의하여 주어진다. 교회에서 각
스테이크마다 축복사로 최소한 한
사람이 성임된다. 그가 맡은 한 가지
책임은 그 스테이크 내의 합당한
회원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축복사가 말하는 축복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전 세계에서 보내 오는 그
부분은 교회 역사과에 보존되고 있다.

약속된 축복은 필요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 때로는 약속된 축복이 성취될
수 없는 듯이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물을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견지에서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관장단 제이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는 이런 이야기를
말해 주고 있다.

“여러 해 전에 한 축복사가 폴란드에
사는 어느 침대의 소녀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그 축복에서 그는 그
소녀가 주님의 성전에서 결혼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성전에서
결혼하기 위하여 폴란드를 떠날
방법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므로 그
약속을 주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의 속삭임에 응하여 소녀에게 그
약속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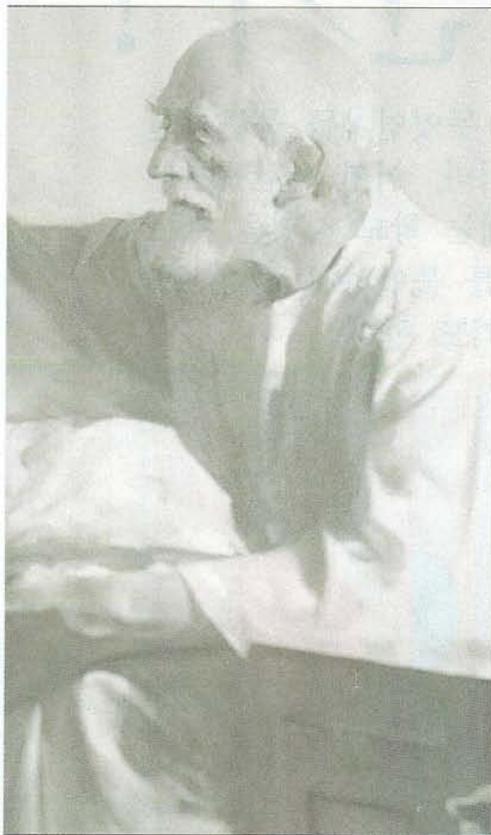
“축복을 준 후에, 축복사는 내
사무실로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것인가?’ 나는 사람이 영의
속삭임에 응할 때는 언제나 잘하는
것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취될 수
없는 약속을 해주었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기로 합시다...’ 이 년도 안
되어, 독일 태생의 사람들에게 서독으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협정이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침대의 소녀는 결혼할 때가
되어 주님의 성전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독일로 이사해
갔습니다.”(스칸디나비아 지역 대회,
1976년 8월, 10페이지)

축복을 받는 시기

인생에서 의미있는 경험은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준비를



고대에 요
아콤포로부터
받았듯이, 우
우리를 인도
축복을 받



셰익스피어가 부친,
축복사의 축복을
기도 이 시대에
할 축복사의
을 수 있다.

갖출 때 더욱 의미있는 것이 된다. 교회의 회원들은 보통 단 한번의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 성스런 경험은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와야 한다. 교회의 축복사인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해주었다: “축복은 열두 살 이하의 사람에게서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주지의 사실로 되어 있으나, 연령은 전적으로 개인의 성숙도에 달린 것입니다. 축복은 개인이 주님의 사업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를 소망하고 있을 때 주게 되어야 합니다.”(인스트라터, 1962년 2월, 43페이지)

청소년들은 그들의 인생 향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십대의 중반기와 후반기에 축복사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물론, 축복사의 축복은 교회에서 태어났거나 개종자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을 위한 것이다.)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합당하다고 느끼며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감독이나 지부장의 접견을 받게 된다. 그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축복을 위한 추천서를 발행한다. 그런 다음 축복사와 약속을 하게 된다. 지역에 현역으로 봉사하는 축복사가 없다면, 스테이크 부장 또는 선교부장을 통해서 협의할 수 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때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지시를 구함으로써 여러분과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이 축복이 좀더 개인적인 시간이 되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은 또한 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에게 준 축복사의 축복, 특히 요셉에게 준 축복의 기사를 읽을 수 있다. 이것을 읽게 되면 축복에서 사용된 언어에 더 익숙하게 될

것이다.

축복에서 유익을 얻는 방법

축복사의 축복의 성취는 여러분이 그 축복과 유익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한가에 달려 있다. 주님은 축복을 약속할 수 있지만, 강제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받게 하실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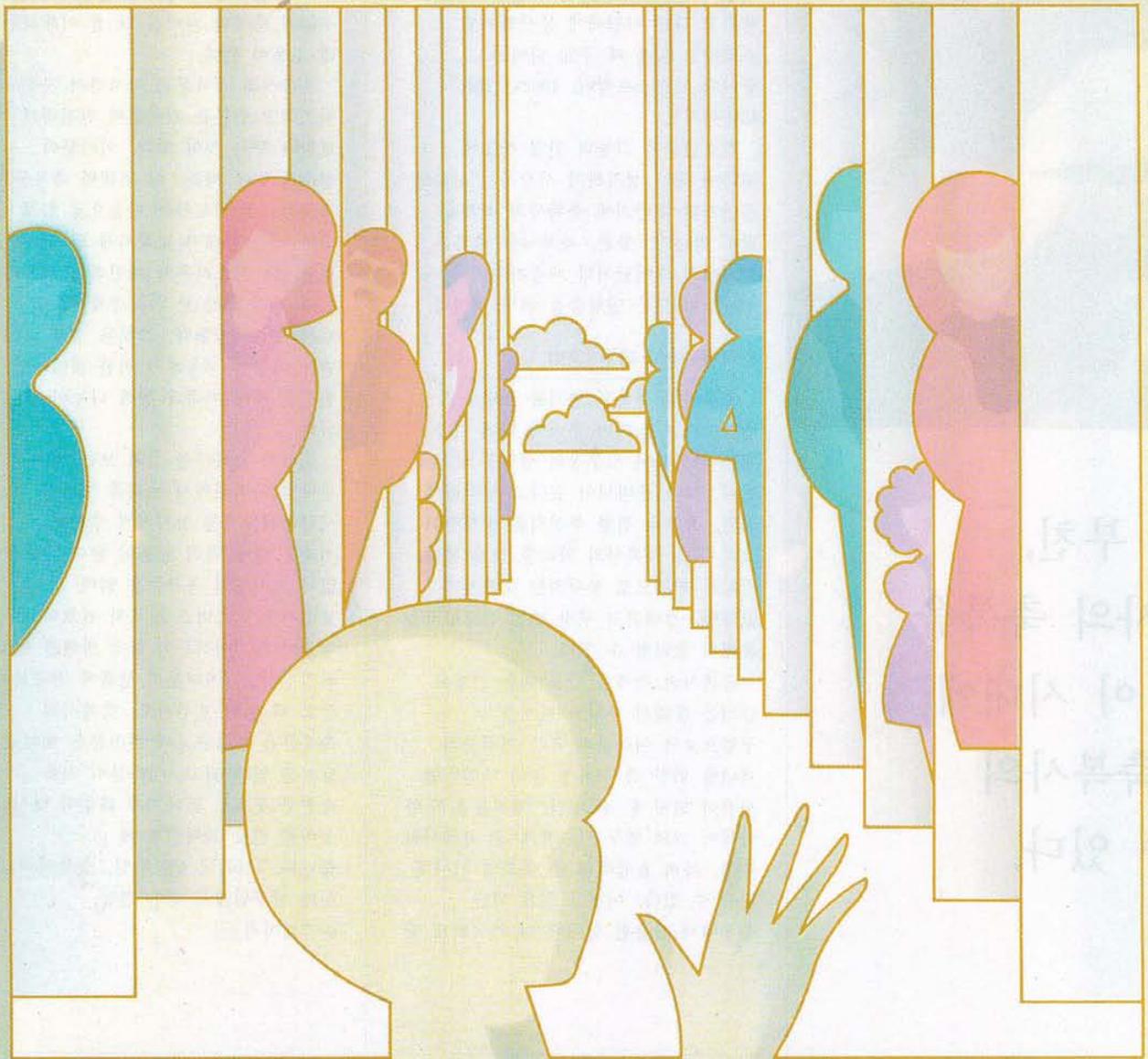
축복사의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복음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축복사의 축복문을 복사하여 자주 참조하고 원본은 가족철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여러분이 성숙해 감에 따라, 이 위대한 축복문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면 더욱 이해가 넓혀지게 될 것이다. 한편, 이 성스러우며 개인적인 기록은 이리 저리 돌려 보거나 공개적으로 토론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주로 그것을 받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합당한 때에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의 축복문을 살펴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상기시켜 주므로, 어려운 때에 특히 도움이 된다. “조용히 앉아 여러분의 축복문을 읽어 보십시오.” 스미스 장로의 권고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특히 방해를 받고, 좌절당하고, 여러분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때 읽어 보십시오.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은 때때로 용기를 얻게 되고, 여러분이 처음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어 다시금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해 줍니다.”(1971년 4월 30일, 솔트레이크 신학 연구원에서 행한 연설, 6~7페이지)□

나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다섯 명의 다른 친구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다섯 가지의 다른 답을 듣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학교 시험을 보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우리들 중에는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텍사스 제일 와드, 루백 가족의 열다섯 살 난 안나 릿 아론을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녀 역시 선교 사업을 시도해 볼 때까지 두려워했다.

“나는 교회에 관해서 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고 안나 릿은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몰몬이라는 사실을 항상 공공연하게 밝혀 왔어요. 내 친구들은 술이나 담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파티가 열릴 때, 신참자가 나에게 나의 표준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강요할라치면, 내 친구들은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리고는 합니다.

“나는 항상 내가 선교사가 되어 어느 한 친구나 모든 친구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는 것을 꿈꾸어 왔어요.”

꿈을 꾸는 것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안나 릿이 교회에 관하여 친한 친구에게 말했을 때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다이안 스완을 안 지가 얼마 안 되었으나, 새 학기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매우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과 후에 함께 집으로 걸어오기 시작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집으로 걸어들 때, 무언가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몰어 보아라...친구에게 물어 보아라.’

“그래서 나는 물어 보았습니다. ‘다이안, 내가 너한테 좀 물어 보아도 되겠니? 나는 전에는 이런 일을 한 적이 한번도 없어. 사실상 좀 떨리는데, 그러나 나는 네가 우리 교회 선교사들을 한번 만나 보았으면 좋겠어. 너는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설명해 주는 공과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거야. 네가 그리고 싶지 않다면 괜찮아. 그렇다고 해도 우리 우정은 조금도 변함이 없을 거야.’

“다이안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들어 보자. 그러나 네가 확실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나는 너희 교회에 가입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안나 릿은 첫번째 공과 약속을 하고, 다이안은 왔으며, 그 분위기와 느낌이 아주 좋았다. 다이안은 어머니에게 공과를 계속 들어도 좋은지 물었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허락을 하면서, 다이안이 교회에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안은 공과를 계속들었으며, 선교사들은 그녀에게 침례를 받을 것을 권하였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다이안은 교회에 가입했다.

다이안은 안나 릿이 교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느꼈는가?

“나는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놀랐어요.” 하고 다이안은

말했다. “내가 어머니에게 교회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도 놀라셨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종교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그 문제로 나를 놀려대었으나, 어머니는 매우 협조적이었으며, 침례받을 때에도 와 주셨어요. 친구들에게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안나 릿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에게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안나 릿의 꿈은 예상밖으로 계속 자라났다.

“나의 친구 단은 다이안과 내가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어느 날 자기도 역시 관심이 있다고 말했어요.” 안나 릿이 말했다. “나는 정말로 기뻐합니다. 우리 스테이크 소녀 대회가 일주일 남아 있었는데, 우리 와드의 신권 지도자 한 분이 비회원 소녀를 데리고 오는 사람을 위해 특별한 기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단이 가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대회는 참으로 영감적이었으며, 단은 침례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그녀는 공과를 시작했으며, 몇 주 후에 그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안나 릿은 그녀의 꿈이 단의 침례로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았다. “단이 침례받은 직후에, 여러 해 동안 사귀어 온 친구가 일요일에 나와 함께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나 릿 아론은 자신의 선교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겠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고 그녀가 말했다.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나로서는 그 친구들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하는 것이 최대의 기쁨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교회의 회원임을 사람들에게 기쁘게 알려 주기를 권고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나누라는 속삭임을 들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느낌을 받을 때는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나누어,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과 평안과 평온함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사랑하며 내 눈에 띄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친구와 복음을 나누기를 조금은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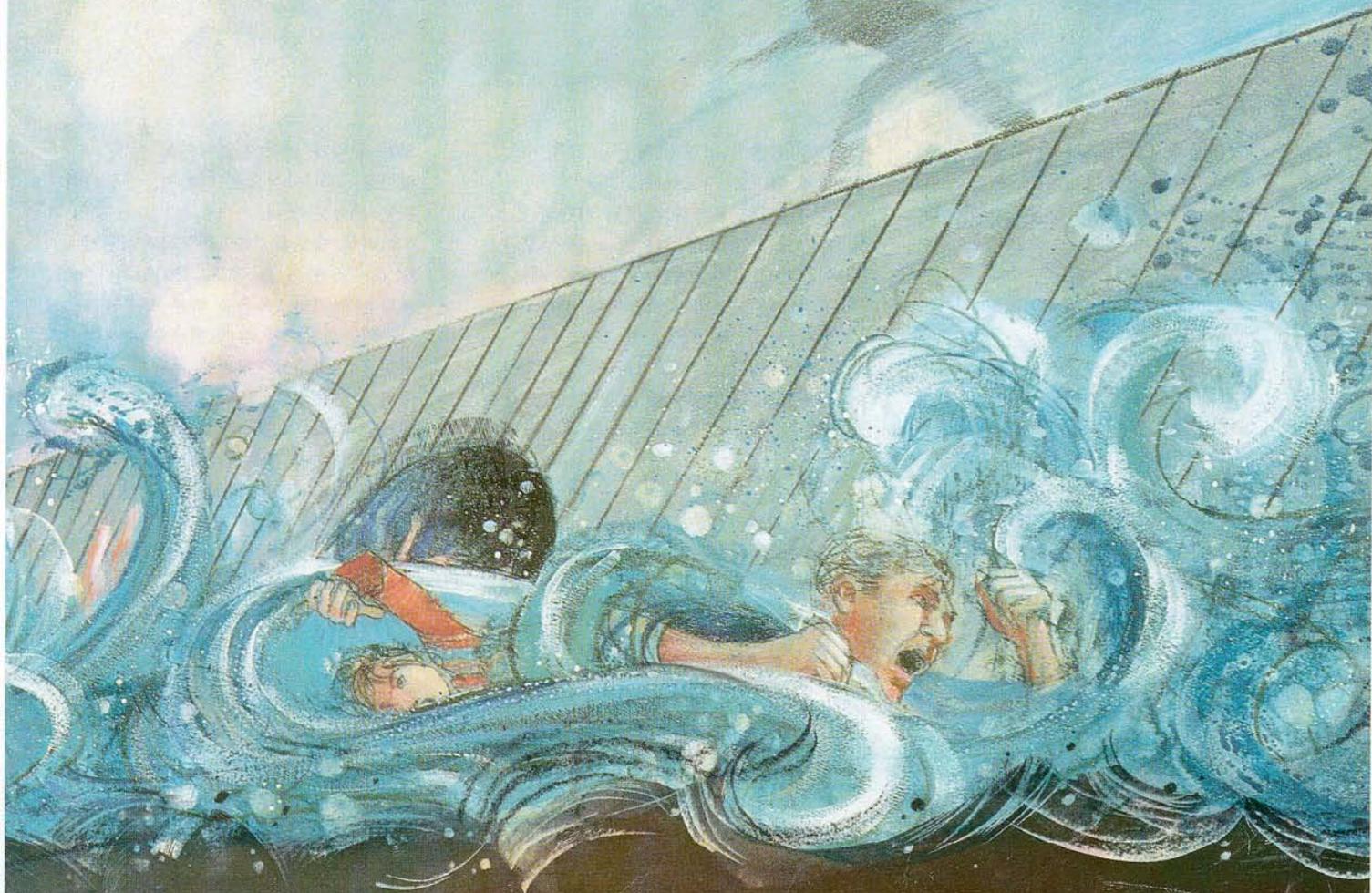
나는 맑게 빛나고 시원한 여름날 아침에 아이다호주의 스테이크 장남이 서 있었다. 나는 주위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숨쉬를 생각하고 있었다. 가까운 곳에 비옥한 들밭에 물을 데 주는 관개 운하로 강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문이 있었다. 깊은 생각과 상념에 젖어 있던 나는, 강 저쪽 멀리에 조그만 물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며 따라 고무 보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곧 그 조그만 보트에 타고 있는 가족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즉 내가 서 있는 부근에서 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던 것이다. 물은 깊고 빠르게 흘렀다. 강물의 한 가운데를 흐르는 것은 안전한 것으로, 매년 수백 척의 보트에 사람들이 타고 여행을 했다. 그러나 나는 그 가족이 노를 짓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 그 보트는 내 밑에

있는 관개 운하로 흘러들어가는 콘크리트 터널로 위험스럽게 가까이 달려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보트가 터널의 한 쪽 끝에 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 속으로 빠져게 되면 위험이 처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또한 보트에 탄 젊은 아버지과 어머니와 할머니와 어린 두 아들들이 일어서서 그들이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 강의 가장자리로 콘크리트 벽을 따라 스스로 밀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아버지는

약속

디비어 해리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를 향해 손을 쳐들고 “도와 주세요!” 하고 소리쳤다. 아, 나도 얼마나 그러고 싶었는지 모른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그에게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가 질사적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르려고 하는 중에, 나는 그 보트가 뒤집혀지는 것을 보았다. 다섯 명의 가족과 함께 보트는 소용돌이치는 물속으로 빠져 터널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소름이 끼쳤다! 내 머리에 우선 떠오른 생각은 그들은 강에서 씻겨져 내려오는 나뭇가지를 거르기 위해서 터널안에 설치해 놓은 수직의 쇠막대를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터널의 낮은 쪽으로 나올 수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판계 수로쪽으로 몸을 돌렸다.

물론 콘크리트 터널 밖으로 쏟아져 내려 오면서 물거품이 삼 미터나 띄게 높이 올랐다. 물거품 속에서 아미지가 먼저 올라 오더니, 그 다음에 어머니가 올라왔다. 두 사람은 다 수영을 잘 하는 사람같이 보였다. 나는 할머니가 소리치는 것도 들었다. 그녀는 오십

미터쯤 더 쓸러 내려 갔으며 수영을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강가로 달려 가서 할머니를 안전하게 강편으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집에 질려 강가에 서 있었다. 두 어린 소년들은 어디에 있는가? 어머니는 소리높이 불러 태었다. 아미지는 지센 물결가를 따라 위 아래로 뛰어다녔다. 어린 소년들은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때 자동차 한 대가 우리가 있는 쪽으로 왔다. 나는 운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사태를 제발로 설명해 주었으며,

그는 구조를 요청하러 차를 몰고 갔다. 이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모터 보트를 탄 사람들이 수로를 다 찾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어린 두 소년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슬픔으로 변한 행복

위기와 비극의 순간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의문점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다. 정신이 어지러웠다. 나는 행복한 가족이, 단지 강으로 급이쳐 들어가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센 물결이 올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하여 가지 않아야 할 터널로 휩쓸어가 버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공포와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는 가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았다. 이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픈 얼굴에 나타나는 슬픔과 실망의 표정을 보면서 나는 가슴속에 고통을 느꼈다.

나는 집으로 차를 몰고 오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었다. 두 어린 소년들이 죽었다. 그러나 죽음이란 무엇인가? 성전에서 영원한 가족이 되도록 계획된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내가 비극을 목격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었으나,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위안과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다.

그렇다면 유혹과 잘못된 비행의 길로 빠져 들어간 아들이나 딸을 둔 부모들은 어떠한 것인가? 간증과 신앙과 때로는 희망조차 잃어버린 아들이나 딸은 어떠한가? 나는 행복한 가족이 그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합당한 길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고통을 받으며, 슬픔을 느끼는 것을 목격했다.

옳은 선택을 해야 함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젊은이들은 분명하게 사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장차 열리게 될 생은 여러분이 현재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다. 악으로 인도하는 길은 피해야 한다.

인생의 여정에서, 몇몇 부주의한 순간에, 죄악이 스며들어 여러분의 생활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공포와 비참함과 슬픔을 가져올 수도 있다. 사람들 중에는 복음 생활을 하고 그들이 요구받은 일을 행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앗아 가는 것이며, 그리하여 “나는 나 자신이고 싶어요. 나는 자유롭게 되고 싶어요. 나는 복음의

모든 규칙과 규정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하는 식으로 말하며, 반항하려 드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태도를 “쇠막대”(니파이일서 8:19~30 참조)를 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바치며, 경전을 연구하고, 교회에 다니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우리 젊은이들과 비교해 보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10 참조)

그 약속은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그의 면전에서 돌아가서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이 모든 목적에서 성공하기를 희망하신다. 그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며, 인생의 여정은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현실 생활의 축복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마저 앗아갈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때 일같이 보도 기관에서
 보도되는 폭력과 전쟁과
 기근, 황폐 그리고 자연의
 파괴력에 의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날에...은
 세계는 동요할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워 떨며”(교성 45:26).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 떨”때, 심각한
 걱정거리로 인해 우리는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자신감을 잃게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친구들과
 동료들의 사랑스런 보살핌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때이다.

그러한 사랑의 보살핌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중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철골조립
 직공들은 강하고 용감한 것으로 평판이
 나있다. 그들은 건물이나 교량의 철
 구조물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세우는 건축물 중에는 100층도
 넘게 하늘로 치솟는 것도 있으며,
 그들은 그들이 나사못으로 쥘 좁다란
 쇠막대 위를 걸어 다닌다. 그들이
 세우는 다리 중에는 수심이 수백 미터
 되는 곳에 기둥을 세우고 후에 무거운
 콘크리트의 하중과 어마어마한 교통량을
 감당해 낼 좁은 받침대 위를 걸어
 다닌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발걸음을
 한번만 잘못 내디디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하고 있는 일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수많은 사건은
 집안에서의 의견의 불일치나 그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게 하는
 무거운 부담에 그 원인이 있다.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워 떨며”

로이든 지 데릭 장로
 철심인 제일 정원회



하는 일로 위협에 무감각하다는 평판을
 그들에게 안겨 주지만, 그들은 그
 감정과 관심사와 속성이 여느 사람과
 같은 보통 시민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속성에서 뛰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확신이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짐은 경험이 많은 노동자였다. 그는
 삼십 여년간 철골 조립공으로 일했으며
 그 직종에서 모든 형태의 일을 해
 보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 그는 수백 번이나 철골을
 연결시키기 위해 땅에서 수백 미터 위에
 걸쳐 있는 좁다란 받침대 위를 걸어
 철골 끝까지 움직여 가거나 기어가기도
 했다. 연결수는 철골 조립공 중에서도
 뛰어난 직공이다. 그들은 가장 큰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일은 가장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짐은 큰 용기와
 안정성이 높은 사람으로 동료들간에
 존경을 받았다.

어느 날 그는 콜로라도 록키 산맥에
 있는 직장에서 철골 조립공들과 일하고
 있을 때, 때 아닌 폭풍우가 불어닥쳤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바람이 세차게 불어
 왔다. 철골 조립공들은 재빨리 내려와
 휴게소로 모여들어 폭풍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거기서 십오 분 정도 있었을
 때 누군가가 “짐이 어디 있지?” 하고
 물었다. 그는 휴게소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철물 구조물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거기 있었다. 철골
 위에 서서 팔로 철물 기둥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직공이 구조물 위로 올라가 보니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의 팔은
 너무나도 단단히 기둥에 감겨 있어
 간신히 떼어 내었다. 그들은 그를
 케이블로 잡아 매어 땅으로 끌어
 내렸다. 그는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그를 휴게실로 데리고 가
 불가에 누워 따뜻하게 녹여 주었다. 한
 시간이 지나자 폭풍우는 그치고, 날씨는
 맑아지고, 태양은 밝게 빛나고,
 새들은 나무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다른 공원들은 일터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나, 짐은 뒤에 남아 있었다.
 그는 용기를 잃었으며, 다시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했다.

현장 감독은 문제점을 파악했다.
 짐으로서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 상황에서는 현명하게
 보살피고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짐이 지금 다시 철골 위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앞으로는 결코 다시 하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폭풍우가 그의 직업의 위험성과 결합하여 예전의 정신을 꺾어버렸다. 그 자신만이 피해를 메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에는 결코 필요로 하지 않았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했다.

현명한 현장 감독은 팔로 짐을 감싸면서 그에게 일어난 일은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감독은 짐에게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으며 그는 능히 해낼 수 있다는 완전한 자신감을 확신시켜 주었다. 짐은 그 감독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철골 조립공들은 그가 일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짐은 바로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오늘 다시 일하러 가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 어렵게 될 것이고, 일주일 후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드디어 그는 스스로 자신이 일하던 철물 구조물 위로 다시 올라가자고 했다. 그의 다리는 약하게 떨렸으며, 전신에 힘이 없었다. 그가 철골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가자 동료들이 그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그것은 그가 필요로 하는 힘과 자신감을 주었다.

짐은 다시 일을 손에 잡아, 다른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고자 노력했으며, 그는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감독이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동료들이 비웃기라도 했다면, 그는 다시 일하러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짐은 그의 동료들이 이해를 해 주었고, 참으로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참된 친구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처럼 경험도 풍부하고 용기와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던 사람이 두려움에 질리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의학계의 전문가들은 그와 같은 상태를 극단적인 불안이라고 묘사한다. “불안이란 (개인에게) 어떤 위험이 출현함을 나타내는 불유쾌한 긴장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위험이 실재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말한다. 그것이 상상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말한다.(놀라움의 본질에 대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생각)”(바이스 잉글리쉬, 정신 신체 의학, 제2판, 22페이지)

오늘날 각종 소요와 분쟁으로 가득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겪고 불안과 두려움에 질려 있다. 개인이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친구들이 그를 팔로 감싸고 그는 혼자가 아니며, 그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성공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흔히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과 진정한 관심으로 부추겨 주기보다는 생각없이 말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약화시킬 때가 많다.

구세주는 다음과 같은 비유에서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말씀하셨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 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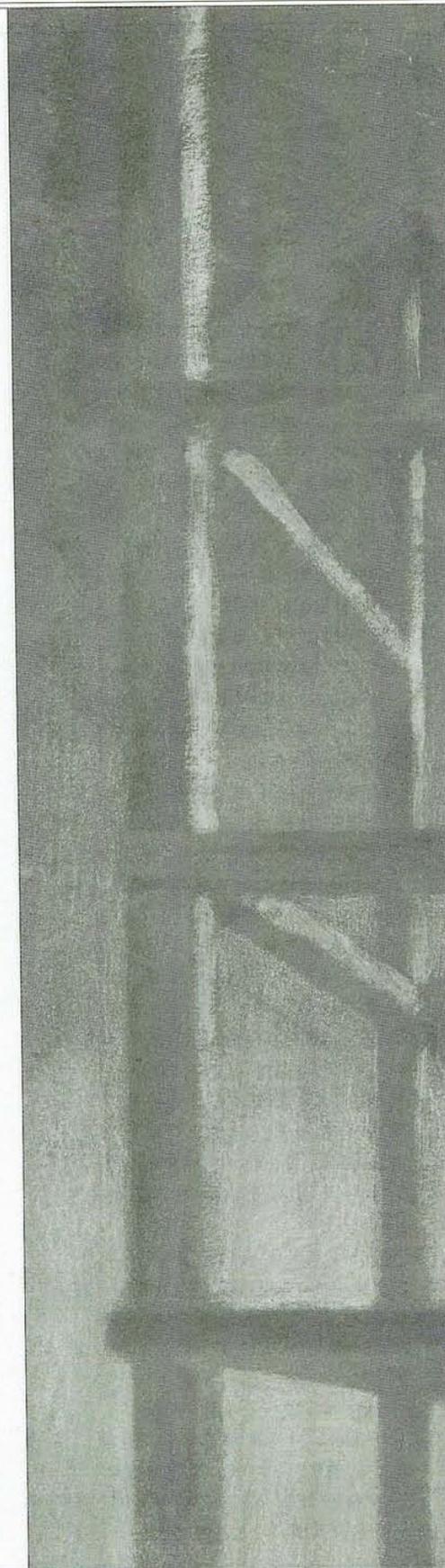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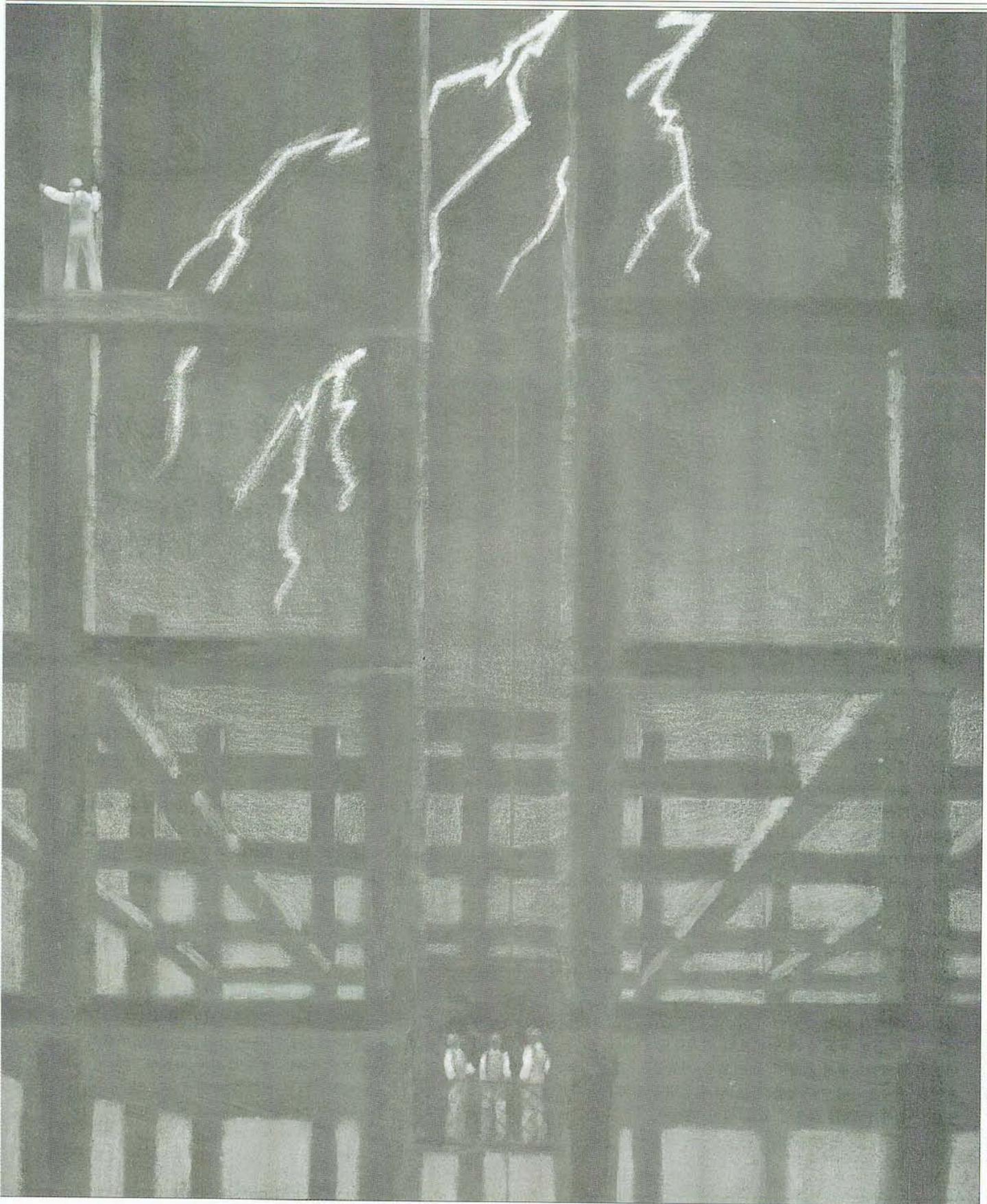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쾌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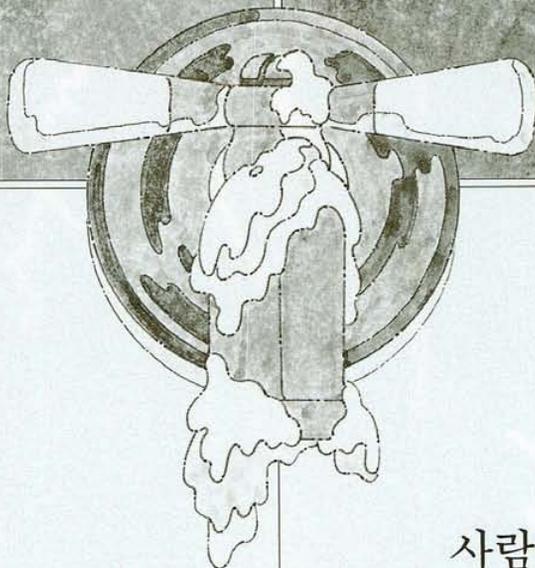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 : 31~40)□







사람들은 우리의 요청에
매몰찬 반응을 보였다.
우리로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힘든 일이었다.

그 해 겨울은 수십 년 동안의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추웠다. 눈이 내리고 날이 갈수록 기온이 떨어졌다. 얼마 안가 바닥이 푹푹 얼어 붙고, 강도 얼어 붙기 시작했다.

나는 남부 프랑스의 선교사로 있었으며 따스한 겨울과 즐거운 여름의 정상적인 기후 조건을 기대하며 그 지역으로 왔었다. 그 지역의 많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파트도 따스한 때를 위해서 지어졌다. 벽은 단열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건물의 외벽에 붙어 있는 수도 파이프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경제적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알맞은 것이기도 했다.

날이 감에 따라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고, 사람들의 태도도 점점 차가워지는 듯했으며, 그들은 우리를 별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곧 그 시의 중앙에 있는 수도 파이프가 얼어 주민들이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것을 알았다. 동결 상태가 전염병같이 퍼졌으며, 우리는 그것이 우리 지역까지 퍼지지 않기만을 바랐다. 염려가 되어 우리는 주시하고 기다렸으나, 얼마 안 되어 어느 날 아침에 우리가 깨어나 보니 아파트도 얼어 붙은 듯 물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 건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인접해 있는 도시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두고 있거나 뒤뜰에 우물이 있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행운이 있을 리가 없었다.

우리는 상점에서 파는 비싼 물을 사 먹으며 이 어려운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이십 분 걸리는 예배당으로 걸어가 빨래도 하고 요리도 했다. 시간이 흐르자, 우리는 아파트내에 물 한 통을 얻어 씻기도 하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준비일에 시간을 내어 아직도 물이 나오며 우리에게 물 한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곧 우리가 정규 전도 사업을 하는 동안 대했던 차가운 태도가 물 한 통만 주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도 되풀이 되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처럼 차갑게 대했다. 우리에게 대한 전형적인 반응은, “내가 내 물을 당신들에게 주면, 나는 무얼 먹지요? 내가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 것이 줄어들텐데요.” 우리로서 실망하지 않기란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집만 더 가보고 집을 향해 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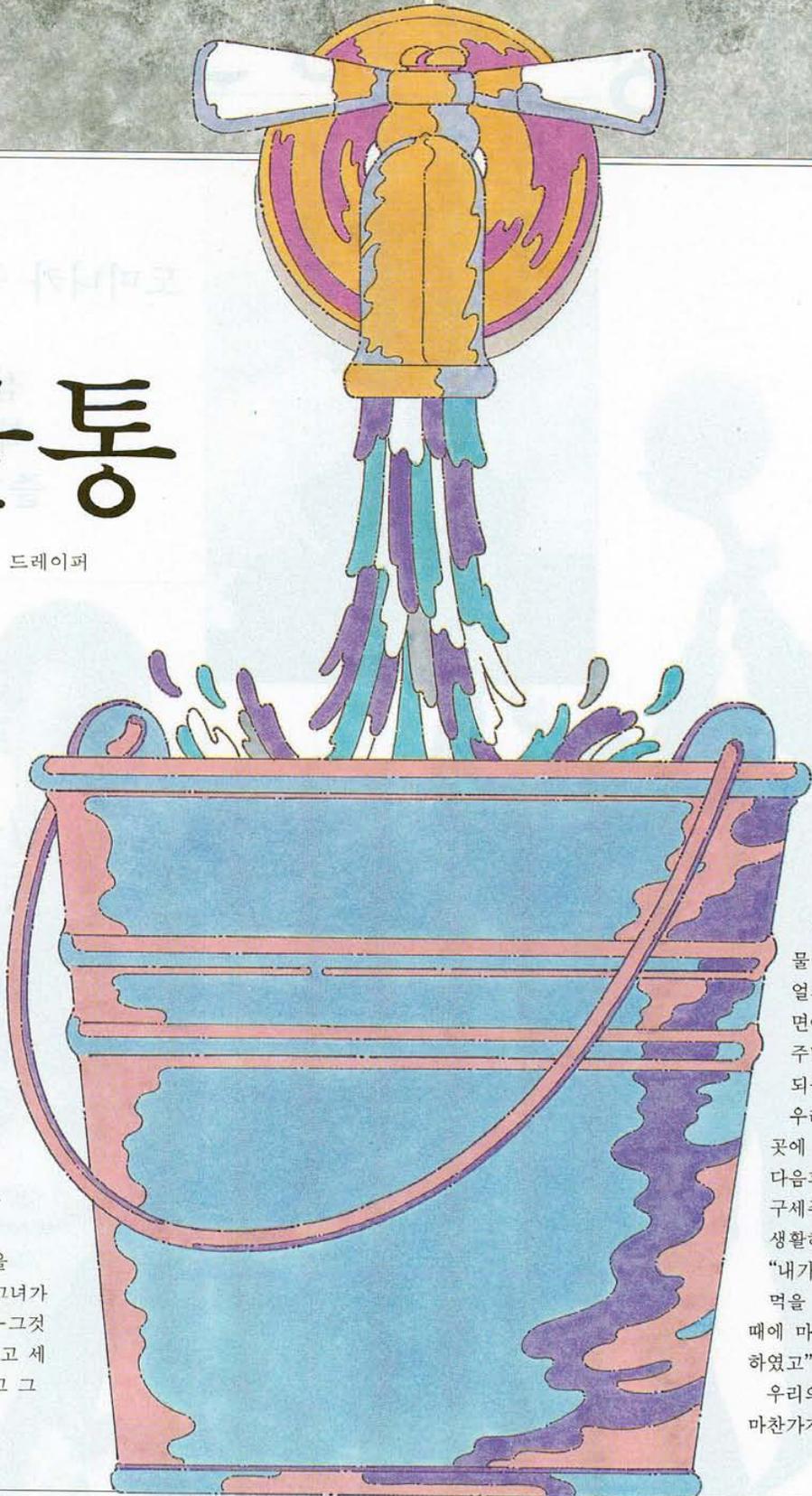
우리는 다음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 날의 일을 우리가 항상 해 오던 일과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상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그들이 바쁘다는 것과 외국에서 온, 긴 오버코트를 입고 까만 이름표를 달고 있는 두 명의 자매

물통

수 트레이퍼

선교사에게서
방해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만을
알 뿐이었다.

한 여인이 문을
열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을 동정 어린
표정으로 보았다.
곧 그녀가
대답했는데 그
첫마디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말처럼
들렸다. “물 한 통을
달라구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물 한 통—그것
뿐입니까? 두 통이고 세
통이고 열 통도 좋고 그



이상도 드리지요.
얼마든지 오세요.
수도
파이프에서 물을
틀어 놓으면 절대로
열지 않을 테니까요.
물이 흐르면, 그것은
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많이
주면, 나는 더 많이
되돌려 받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이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구세주의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마태복음 25 : 35)
우리의 간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

리
쇼
그
림

성
도
의
벗
88
년
4
월
호

신앙의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십대들은
점점 자라는
복음의 빛을
즐기고 있다.



리자 에이 존슨

천 동치는 소리와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인
산토 도밍고에 있는 세미나리
교실 아침반에 전기가

깜박거리고 나갔다. 어떤 사람은 촛불을
가지러 간다. 활발한 성구 토론이 거의
지장없이 계속되고, 천장을 두드리는
빗소리 속으로 학생들이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가만 있자! 방이 캄캄해져,
학생들은 그들의 책을 전혀 볼 수 없다.
그들은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날의 성구를 암송했으며
그것을 외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루에 열 개 가량의 성구를 암송한다.

이러한 근면성과 헌신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많은 교회의 청소년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일요일에
생각해야 할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세미나리는 그들이 아침에
행하는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복음은 그들의 생활에서 추진력이 되며,
그들은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그것을
부지런히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십대의 소녀는
세미나리에 가기를 원했으나, 그녀의
부모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가 떠나기 전에 집안
일을 모두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는 집안 일의 목록을 길게 잡아
주었다. 부모가 크게 놀란 것은, 그녀는
세미나리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려고 아침 네 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매일 아침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위해 진흙길을 삼십 분씩 걸어
와야 했지만, 그들은 결코 늦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있게

그들이 기울이는 노력과 모든 시간은
값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요.” 오사마 와드의 윌리
벤추라는 말한다. “우리는 교회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들은 대부분이 충분히 행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방과 후에 학교가
 끝나면, 와드의 많은 청소년들은 교회에
모여 찬송가 연습을 하거나,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며, 공부도 한다. 저녁을
먹은 후에, 그들은 복음 선교사들과
함께 모임을 갖거나 “노세 데
아미스테드”, 즉 “우정의 밤”을 여는
것을 돕는다. 이러한 우정 증진
프로그램은 구도자들을 위해 와드
회원들이 후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보통
영화도 보고, 간증과 말씀을 나누며,
구도자들이 교회에 친해질 수 있고
편안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과도
나눈다. 흔히 청소년들은 그들 스스로
전체 활동을 계획한다.

비록 교회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조직된 지 구 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현재 회원수는 11,000명이 넘는다.
한달에 침례받는 사람의 수가 삼백 명이
넘는 것이 보통이다.

선교 사업이 이처럼 성공적이고
청소년들이 이처럼 강한 이곳은
어디이며 어떤 곳인가? 도미니카
공화국은 하이티 국과 함께 히스파놀라
섬을 나누어 갖고 있다. 그것은 멕시코
남단의 서쪽과 베네주엘라 북쪽의
서인도 제도에 있는 열대의 섬이다.

아열대성 기후의 많은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노천 시장에서
사포테, 구아나바나, 레초사 및
그라나디요와 같은 과일과 야채를

장보아 사기를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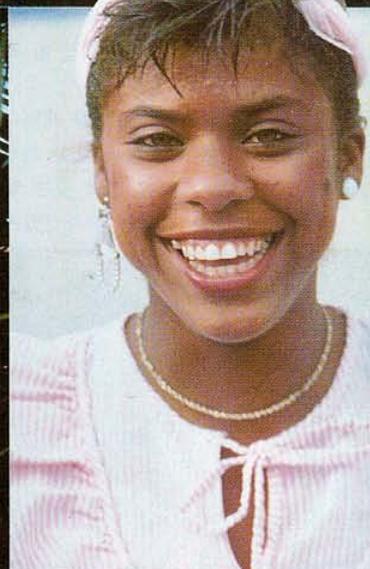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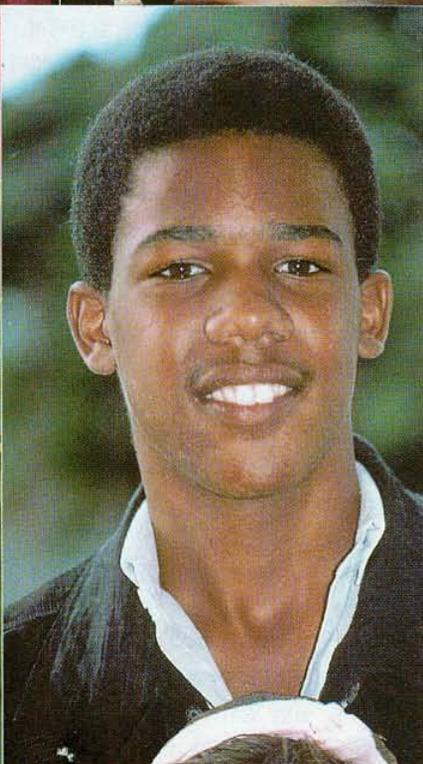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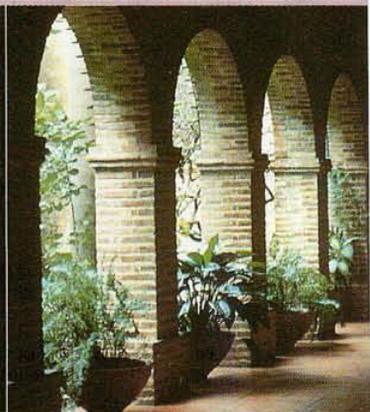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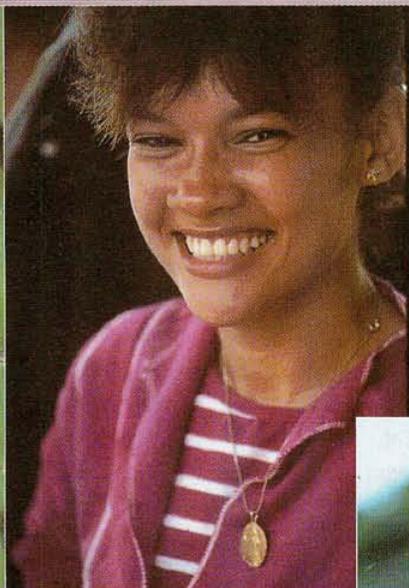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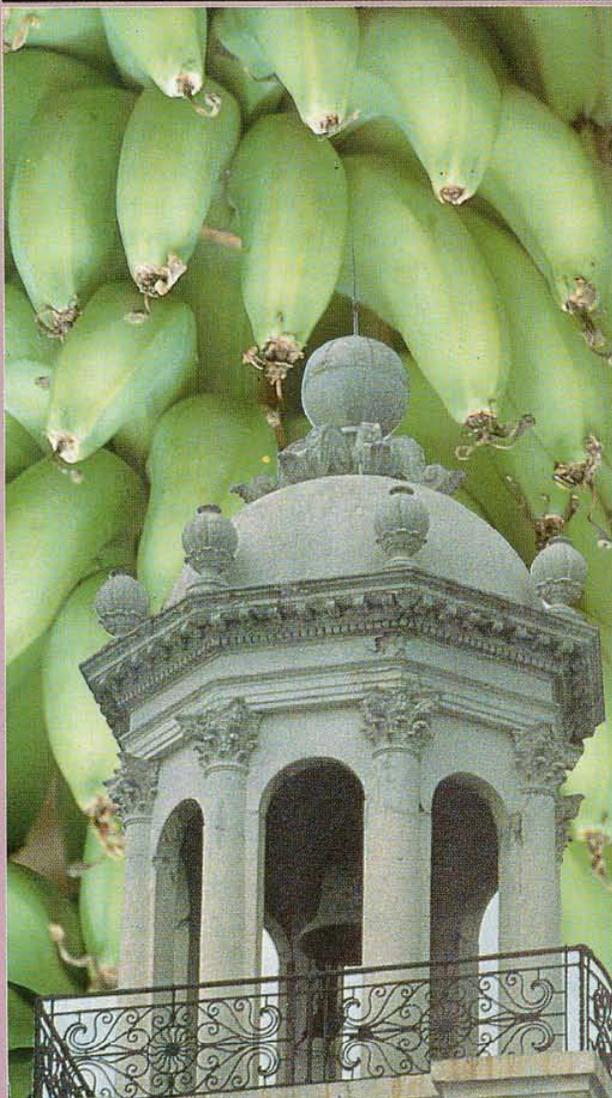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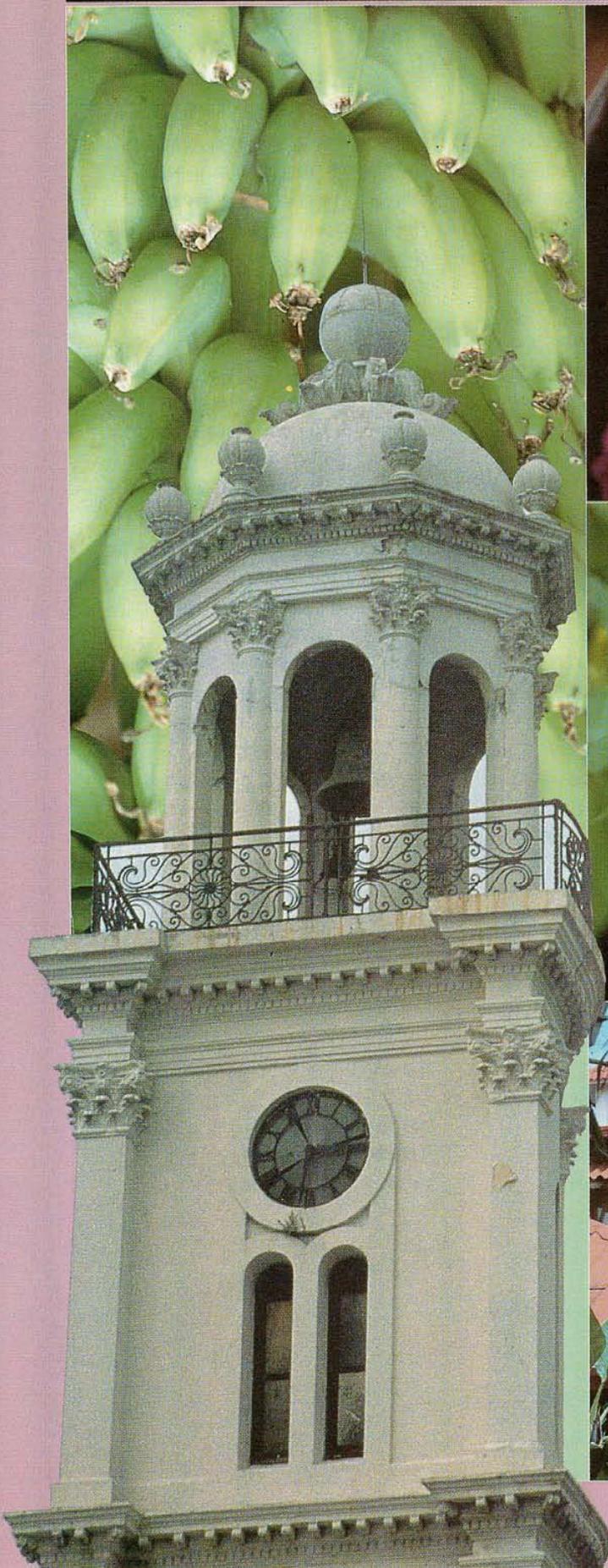
밝게 색칠한 집은 사방이 흰히 터져
있어, 시원한 바람과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게
지어져 있다. 이웃간에는 사교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에서나 상당히 가깝게
지내고 있다.

그러한 집모양은 선교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웃집에 전도를
시작하면, 누구나 다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느 가족이
토론을 듣기 시작하면, 이웃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다. 어느 소녀는
이웃 집의 창문 곁을 여러 번 지나
다니다가 그들이 물문경을 공부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도 그들이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내어야 했던 것이다.

도미니카 십대들은 매일 교회에
대하여 말할 기회를 점점 더 많이 갖게
된다. 교회 회원들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어떤 고등학교에는
말일성도가 삼십 명에 달한다.)
교사들도 그것을 알고, 수업 시간에
“로스 모르모네스” 라고 종교에 관한
질문을 한다. 그들은 항상 예절 바른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며,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기도와 영감으로,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다. 이로 인해, 그들의 급우들은
그들에게 다가와 더 많은 질문을 한다.

대부분의 도미니카인들은 활달하고
낙천적이지만, 그들의 유산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크리스토퍼
콜롬부스는 신대륙으로 가는 길에 이
섬에 상륙했다. 수도인 산토 도밍고는
신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며,
도미니카 공화국은 신대륙에서 최초의





대학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페인 사람들이 이 지역에 처음으로 정착했을 때, 많은 인디안 원주민들이 죽었으나, 살아 남은 사람들은 오늘날 몇몇 도미니카인들에게 레이먼인 유산을 전해 주었다. 프랑스에서 한때 이 섬을 통치하면서 노예들을 데려다 그들 농장에서 일을 시켰다. 오늘날의 도미니카 문화들은 스페인과 인디안과 프랑스와 아프리카의 영향이 혼합되어 있다.

그 혼합의 훌륭한 결과는

우아하면서도 활달한 메렝게라 불리는 민속춤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파트너와 함께 추어야 하는 춤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교회 활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메렝게는 웃음처럼 대부분의 도미니카인들에게는 자연스런 것이다.

흥미있는 것은, 메렝게 음악과 춤은 특별히 어려운 시련을 도미니카 십대들에게 제공한다. 가장 훌륭한 메렝게 악단은 대부분이 일요일에 연주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은 주중에는 메렝게 음악을 흔히 듣지만, 일요일에는 라디오를 듣지 않는다.

이러한 헌신은 청소년들이 다음의 목표를 위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선교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멘도사 지부의 열 일곱 살 난 조니 우베라는 말한다. 그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미나리에 나가고, 경전을 읽고, 복음 선교사와 함께 일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 나라에서 선교사 수의 거의 반은 도미니카인이며, 그 백분율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페르로 로드리게즈는 침례받기 전부터 선교 사업을 나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개종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교회 활동에 초대를 받았는데, 아주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경전을 읽기 시작했으며, 선교사가 되어 그러한 경전에 들어 있는 내용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후 곧 침례를 받았으며, 지금은 선교 사업을 행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언제나 쉬운 단계만은 아니다. 부모나 친구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장 하기 힘든 일은,” 하고 리셀 벤추라는 말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를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놀려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행복합니다.”

루이 에스피날은 이러한 동년배의 압력에 대하여 흥미있는 해결책을 발견했다. “나는 없애 버리고 싶은 악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자 하며, 그들을 모두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회원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전역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열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십대를 찾게 될 것이다. 사실상, 그들에 관해서 세상의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알리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미니카 십대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언젠가 만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팀이라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즉 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교회는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말일성도 십대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같은 목표와 공통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되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구세주는 우리를 위해 매우 훌륭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즉 그는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빛을 밝게 비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그것은 전기불이 나간다고 해도 도미니카 세미나리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진리기 그들의 생활에 소개될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그들의 친구를 돕기를 열망하게 해준다. 그 빛은 그들의 불길에 불을 붙이고 그들이 신앙의 공화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10~11)

